

■ 목회사회학연구소 공개세미나 ■

갈 길 잃은 현대인의 영성

- 소속 없는 신앙의 모습 -

일시: 2013. 4. 25. (목) 오후 3시-5시

장소: 명동 청어람 3실



목회사회학연구소

일정 및 순서

사회/ 장진원(목회사회학연구소 기획실장)

- 15:00-15:10 인사말
/ 조성돈 교수(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 15:10-15:50 소속 없는 신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정재영 교수(목회사회학연구소 부소장)
- 15:50-16:10 가나안 성도를 통해 본 현대인의 영성
/ 조성돈 교수(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 16:10-16:30 가나안 성도와 새로운 신앙의 방향
/ 양희승 대표(청어람아카데미 대표기획자)
- 16:30-17:00 질의 응답 및 토론

인 사 말

신앙은 있지만 제도화된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부터인가 우리는 이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꾸로 해서 읽으면 '안나가'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인지 모르지만 재치 있게 표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만나보면 대개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 자체가 미워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안 나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성년이 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머리가 깨면서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정적 이유는 자신들이 틀에 박힌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었기,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여 주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대한민국의, 또는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들을 영적이나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이들을 거리를 둔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서구의 가나안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의 가나안 성도는 같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과제로 진행된 이번 정재영 교수의 조사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략적으로 접근했던 이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현대인들의 종교성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한국교회의 또 다른 단면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잘 살펴보면 이제 한국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는 그 동안 현대인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가톨릭 성장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현대인의 종교성을 찾아보았고(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을까?), 2008년의 이머징 교회에 대한 세미나, 2011년의 가나안 성도 연구, 2012년의 포스트모던에 대한 응답과 대학생 의식조사(학복협)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또 내어놓게 되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연구는 이 부분에서 한 단계의 전진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찾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이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신을 '영적 노숙인'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영적 정착과 함께 평안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소속 없는 신앙인 조사 결과보고서¹⁾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목회사회학연구소 부소장)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이들의 실체와 특성을 파악하여 목회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가나안 성도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속 없는 신앙'(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나 '영적이기는 하나 종교적이지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기독교인들의 특성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것이 종교사회학의 주요 주제인 세속화와의 연관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함.

2. 설문 문항 구성

- 교회를 떠난 사람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와 현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
- 단순히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를 떠났는지 기성 교회 또는 제도 교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
- 세속화 또는 탈제도화된 신앙 여부에 대한 질문.

3. 표집 방법

- 무작위 추출

4.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1) 온라인 조사 개요

- (1) 현재 국내 조사시장에서 온라인 조사 비중의 급격한 상승세
- (2) 2011년 현재 전체 정량조사 방법론 중 26%로 가장 높은 비중 점유
- (3) 향후 온라인 조사 비중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유럽, 일본은 온라인 조사 비중 40% 상회)

2) 온라인 조사 과정

- (1) 조사 설계 및 설문 내용 확정 후, 온라인조사 URL 구축
- (2) 조사 대상과 조건이 유사한 패널을 100배수 가량 샘플링하여 설문 초청 메일 발송 (조사난이도에 따라 메일링하는 패널수 변동)
- (3) 조사 참여 희망 패널은 이메일의 조사 참여 배너 클릭 후, 즉시 조사 참여 가능
- (4) 스크리닝 문항 통과한 패널들만 조사 참여 가능
- (5) 조사응답한 패널은 소정의 사례금을 받음
- (6) 실시간 조사 결과 누적

1) 이 조사연구는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소속 없는 신앙'에 관한 연구"(과제번호 NRF-2011-327-A00267)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3) 온라인조사의 장점

- (1) 일대일 개별면접조사의 한계 보완 (응답자의 면접 거부 매우 심함. 본조사의 경우 출현율 (incidence rate) 매우 낮은 경우 조사하기 매우 어려우나, 온라인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
- (2) 전화조사의 한계 보완(10-15개 문항만 커버할 수 있는 전화조사 문제를 극복. 최대 30분 이상 조사도 가능)
- (3) 개별면접조사보다 매우 저렴. 전화조사와 비슷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저렴함.
- (4) 설문을 프로그래밍하여 응답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타 조사방법에 비해 훨씬 Raw data가 깨끗함
- (5) 개별면접조사보다 조사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짧음

5. 조사 기간: 2013년 2월 4일 ~ 13일(10일간)

6. 조사 기관: (주)글로벌리서치

II. 이론적 배경

- 현대의 종교현상과 관련하여서는 '세속화 시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사회학자들은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하고 근본적인 종교적 변화를 세속화라고 보고 있음. 세속화란 근대 이후 사회에서 종교적 의미와 중요성이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종교의 쇠퇴라는 주제로 이어짐. 이러한 세속화는 다양한 결과를 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종교의 사사화(私事化)와 탈제도적 종교성임.
- 종교의 사사화는 과거에 공공영역에서 중요성을 가졌던 종교가 이제는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으로 물러나게 되어 '신앙의 개인주의화'를 야기하는 상황을 말하며, 탈제도화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적인 욕구는 있으면서도 제도 교회를 선호하지 않는 속성을 뜻함. 사회가 보다 다양하게 분화하고 다원화되는 경향으로 이러한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중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서구에서는 이미 '소속되지 않은 신앙'(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²⁾
-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교계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였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 다녔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임.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인 것과 같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또는 의도적으로 '기성'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함.
-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서울의 어느 지역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종의 신우회들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함. 이들 중에는 아예 제도 교회에 나가기 를 거부하고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 없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종의 대안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³⁾
- 현재 이러한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움. 2004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에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가 무려 758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198만 명을 제외한 560만 명이 개신교를 믿다가 무종교인이 된 수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나안 성도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2) 이에 대하여는 Grace Davie, *Religion in Britain since 1945: Believing without belonging*(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를 볼 것.

3)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정재영, 「한국교회 10년의 미래」(서울: SFC, 2013)의 10장 5절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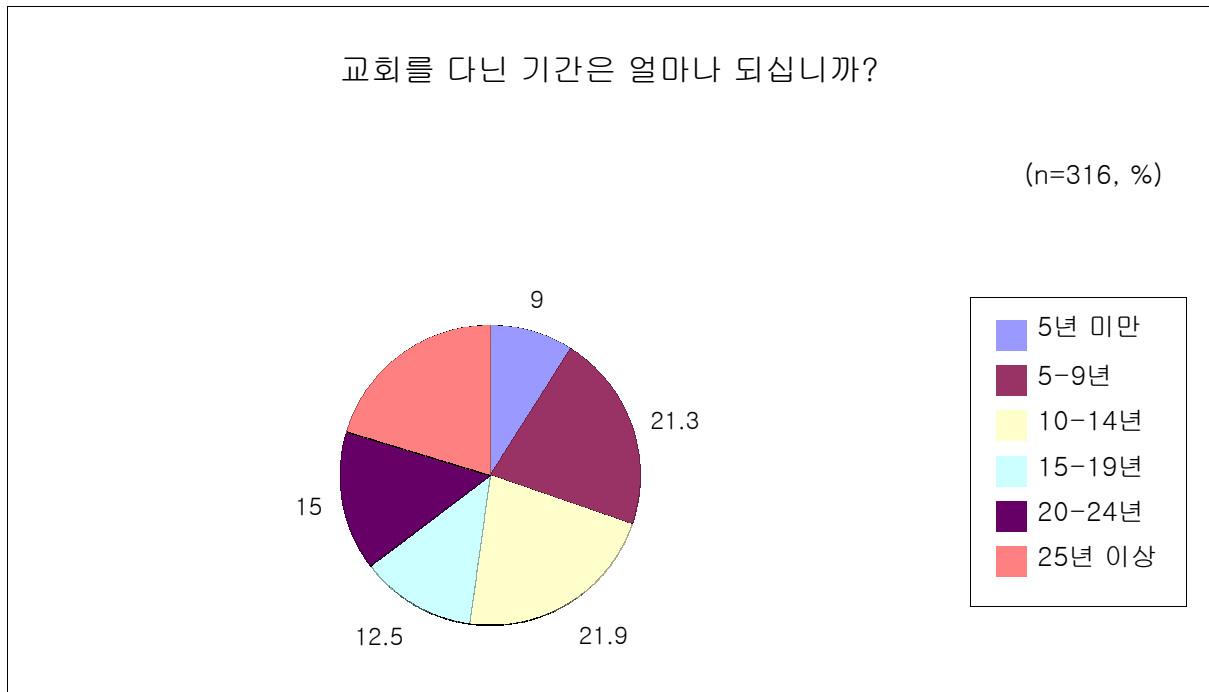
Ⅲ.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결과	
		사례수	%
전 체		316	100.0
성 별	남성	159	50.4
	여성	157	49.6
연 령	20대	61	19.4
	30대	73	23.2
	40대	80	25.2
	50대	60	19.1
	60대 이상	41	13.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17.8
	대졸	219	69.2
	대학원졸 이상	41	13.0
직 업	자영업	27	8.4
	블루칼라	30	9.4
	화이트칼라	181	57.3
	가정주부	39	12.3
	학생	15	4.8
	무직/기타	25	7.9
교회 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11.6
	서리집사	48	15.1
	직분 없었음	232	73.3
거주 지역	서울	147	46.6
	경기도	76	24.1
	전라도	30	9.6
	경상도	38	12.1
	충청도/기타	24	7.7

⊙ 교회출석 시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85명으로 26.7%를 차지하였음. 조사 과정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제외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26%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이것은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고학력자가 많이 표집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됨. 최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10.5%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략 100만 명에 가까운 가나안 성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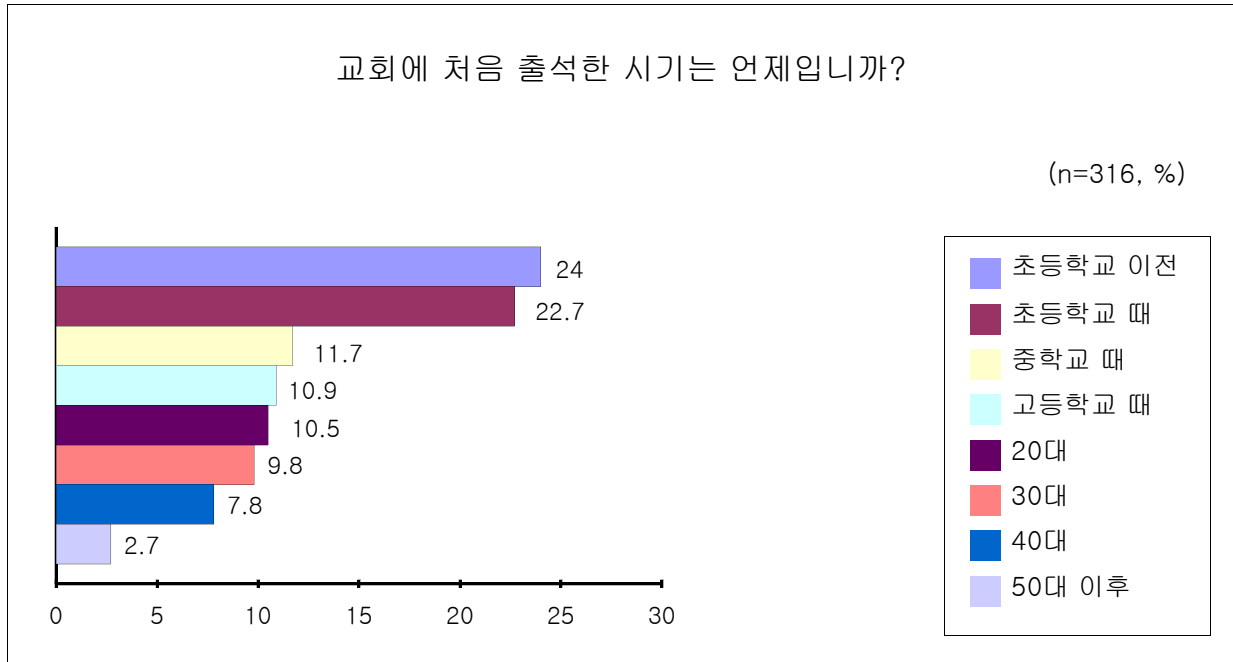
2. 교회 출석 기간



	사례 수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년 이상	계	평균 (년)
		%	%	%	%	%	%		
전 체	(316)	9.0	21.3	21.9	12.5	15.0	20.3	100.0	14.2
성 별	남성 (159)	6.7	19.4	20.6	12.7	17.0	23.6	100.0	15.4
	여성 (157)	11.3	23.1	23.2	12.4	13.0	17.0	100.0	13.0
연 령	20대 (61)	11.8	32.4	32.4	8.8	8.8	5.9	100.0	9.9
	30대 (73)	10.0	24.5	28.2	14.5	13.6	9.1	100.0	11.5
	40대 (80)	9.1	16.4	23.6	15.5	17.3	18.2	100.0	14.4
	50대 (60)	5.3	18.4	10.5	15.8	13.2	36.8	100.0	18.0
	60대 이상 (41)	8.3	12.5	8.3	4.2	25.0	41.7	100.0	19.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8.9	26.7	17.3	4.9	21.2	21.0	100.0	14.5
	대졸 (219)	9.2	19.9	24.2	14.8	13.2	18.7	100.0	13.6
	대학원졸 이상 (41)	7.9	21.1	15.5	11.0	16.3	28.2	100.0	16.6
직 업	자영업 (27)	12.0	29.7	17.0	8.7	11.4	21.2	100.0	14.4
	블루칼라 (30)	0.0	15.2	23.5	6.7	25.4	29.2	100.0	17.1
	화이트칼라 (181)	9.9	16.9	23.3	15.0	15.6	19.4	100.0	14.2
	가정주부 (39)	9.9	15.6	20.5	9.0	18.8	26.2	100.0	15.1
	학생 (15)	11.9	59.7	28.3	0.0	0.0	0.0	100.0	7.1
	무직/기타 (25)	6.9	36.4	13.1	19.0	5.6	18.9	100.0	13.4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9.0	13.7	11.4	8.6	10.6	46.7	100.0	18.1
	서리집사 (48)	1.4	19.9	14.3	8.2	19.9	36.4	100.0	18.5
	직분 없었음 (232)	10.5	22.7	25.1	14.1	14.7	12.8	100.0	12.7

⊙ 10-14년이 2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9년이 비슷하게 21.3%로 많았음. 25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20.3%를 차지해 비교적 교회를 출석한 기간들이 긴 편이었고, 평균은 14.2년으로 나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평균 1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음.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교회 다닌 기간이 2.4년 길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교회 다닌 기간이 길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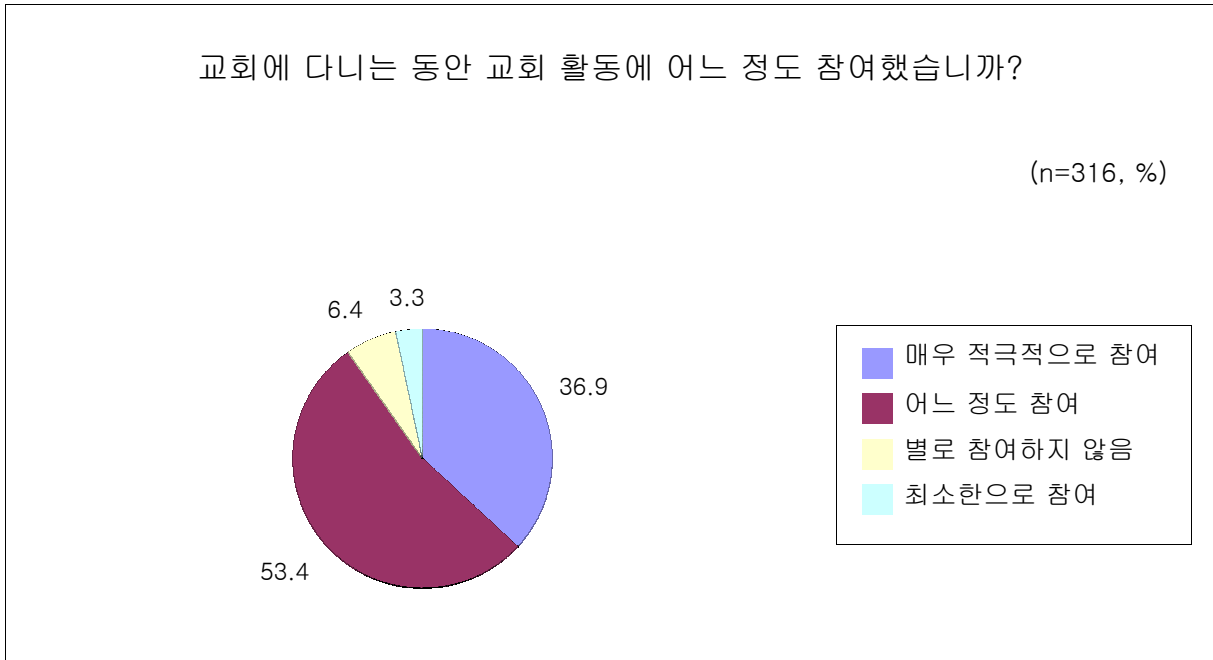
3. 최초 교회 출석 시기



	사례수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전	때	때	때	%	%	%	이후	
		%	%	%	%	%	%	%	%	
성	전 체	(316)	24.0	22.7	11.7	10.9	10.5	9.8	7.8	2.7
	남성	(159)	20.8	20.6	10.9	15.3	13.4	10.6	4.1	4.2
	여성	(157)	27.2	24.7	12.5	6.4	7.5	9.0	11.5	1.1
연	20대	(61)	52.9	29.4	8.8	8.8	0.0	0.0	0.0	0.0
	30대	(73)	31.8	21.8	16.4	11.8	10.9	7.3	0.0	0.0
	40대	(80)	17.3	24.5	16.4	13.6	19.1	9.1	0.0	0.0
	50대	(60)	10.5	18.4	7.9	15.8	7.9	10.5	26.3	2.6
	60대 이상	(41)	0.0	16.7	4.2	0.0	12.5	29.2	20.8	16.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17.5	30.4	1.3	10.6	12.8	10.0	14.4	3.1
	대졸	(219)	25.1	18.9	14.9	12.4	9.4	10.1	6.1	3.1
	대학원졸 이상	(41)	27.3	32.1	8.7	3.5	12.9	7.7	7.7	0.0
직	자영업	(27)	2.7	11.4	8.0	22.5	5.5	6.5	31.0	12.5
	블루칼라	(30)	24.9	32.3	6.9	14.5	10.3	5.8	5.3	0.0
	화이트칼라	(181)	26.9	21.2	15.6	8.8	11.7	10.2	3.6	1.9
	가정주부	(39)	14.1	24.4	9.8	6.0	9.9	18.8	17.1	0.0
	학생	(15)	35.8	52.2	0.0	11.9	0.0	0.0	0.0	0.0
	무직/기타	(25)	32.7	12.9	2.7	16.6	14.9	6.9	6.4	6.9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4.3	12.6	2.0	6.3	10.2	23.1	23.1
서리집사	(48)	12.6	23.5	1.5	7.8	15.1	19.2	20.3	0.0	
직분 없었음	(232)	29.5	24.1	15.3	12.3	9.6	5.8	2.7	.7	

⊙ 초등학교 이전이 2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때가 22.7%, 중학교 때 11.7%, 고등학교 때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어렸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중학교 이전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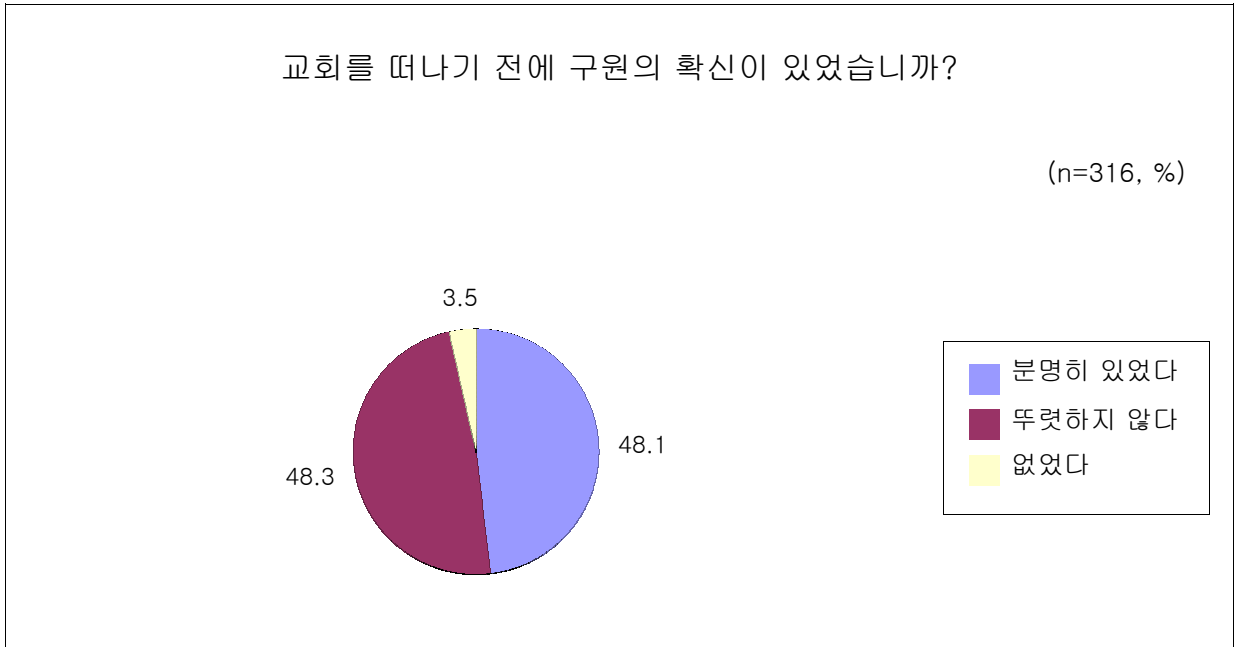
4. 교회 활동 참여 정도



	사례수	① 매우 적극적	② 어느 정도	③ 별로	④ 최소한	참여 (①+②)	비참여 (③+④)	평균 4점척도	
		%	%	%	%	%	%		
전체	(316)	36.9	53.4	6.4	3.3	90.3	9.7	3.24	
성별	남성	(159)	42.8	46.9	7.2	3.1	89.7	10.3	3.30
	여성	(157)	30.9	60.0	5.6	3.6	90.9	9.1	3.18
연령	20대	(61)	32.4	61.8	0.0	5.9	94.1	5.9	3.21
	30대	(73)	47.3	42.7	6.4	3.6	90.0	10.0	3.34
	40대	(80)	34.5	59.1	5.5	.9	93.6	6.4	3.27
	50대	(60)	31.6	52.6	15.8	0.0	84.2	15.8	3.16
	60대 이상	(41)	37.5	50.0	4.2	8.3	87.5	12.5	3.1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17.8	68.1	11.1	3.1	85.9	14.1	3.01
	대학원졸 이상	(219)	42.9	48.0	5.1	4.0	91.0	9.0	3.30
직업	대학원졸 이상	(41)	30.8	62.0	7.3	0.0	92.7	7.3	3.24
	자영업	(27)	42.0	45.5	12.5	0.0	87.5	12.5	3.29
	블루칼라	(30)	36.9	50.2	10.7	2.2	87.1	12.9	3.22
	화이트칼라	(181)	39.4	52.8	4.7	3.1	92.2	7.8	3.29
	가정주부	(39)	35.4	56.0	4.1	4.5	91.5	8.5	3.22
	학생	(15)	0.0	100.0	0.0	0.0	100.0	0.0	3.00
교회출석시 직분	무직/기타	(25)	37.7	37.5	14.7	10.2	75.2	24.8	3.03
	안수집사 이상	(37)	42.7	42.0	15.3	0.0	84.7	15.3	3.27
	서리집사	(48)	33.5	61.7	4.9	0.0	95.1	4.9	3.29
직분 없었음	(232)	36.7	53.5	5.3	4.5	90.2	9.8	3.22	

⊙ “어느 정도 참여했다”는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도 36.9%로 높게 나와 긍정률이 90.3%를 나타냈다. 나이로는 40대 이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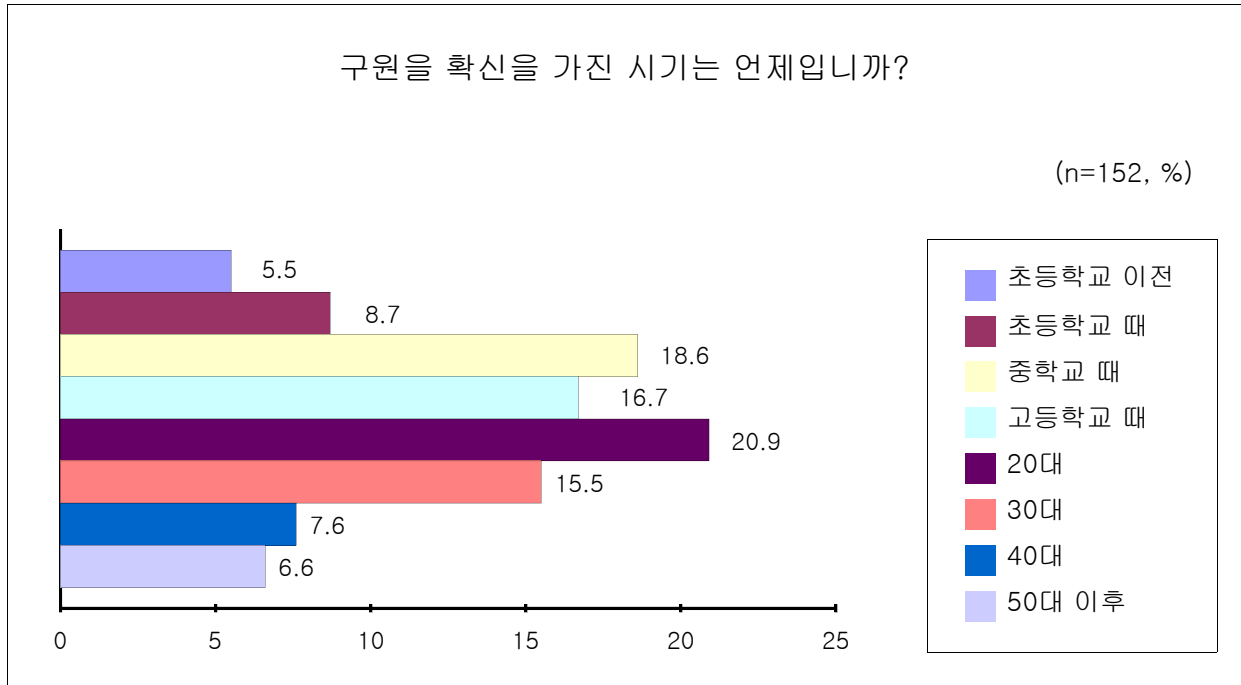
5. 교회 이탈 전 구원의 확신 여부



		사례수	분명히 있었다	뚜렷하지 않다	없었다
			%	%	%
전 체		(316)	48.1	48.3	3.5
성 별	남성	(159)	53.5	42.4	4.1
	여성	(157)	42.7	54.3	2.9
연 령	20대	(61)	41.2	52.9	5.9
	30대	(73)	45.5	52.7	1.8
	40대	(80)	47.3	49.1	3.6
	50대	(60)	52.6	44.7	2.6
	60대 이상	(41)	58.3	37.5	4.2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51.2	48.8	0.0
	대졸	(219)	46.7	48.2	5.1
	대학원졸 이상	(41)	51.6	48.4	0.0
직 업	자영업	(27)	56.9	43.1	0.0
	블루칼라	(30)	61.4	38.6	0.0
	화이트칼라	(181)	50.0	46.5	3.5
	가정주부	(39)	49.4	48.7	1.9
	학생	(15)	23.9	76.1	0.0
	무직/기타	(25)	22.1	61.6	16.3
교회 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69.0	31.0	0.0
	서리집사	(48)	55.7	44.3	0.0
	직분 없었음	(232)	43.3	51.9	4.8

⊙ “분명히 있었다”와 “뚜렷하지 않다”가 거의 반반으로 나왔으나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다는 응답이 48.1% 나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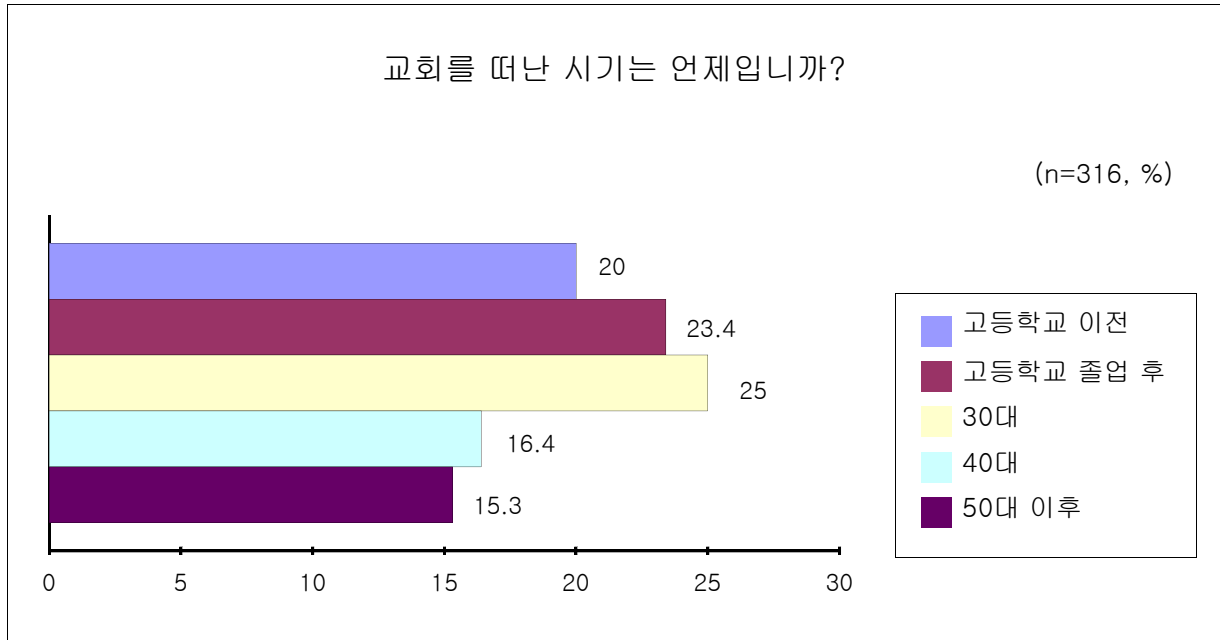
5-1.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시기



	사례수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전	때	때	때				이후
		%	%	%	%	%	%	%	%
전	체 (152)	5.5	8.7	18.6	16.7	20.9	15.5	7.6	6.6
성	별								
	남성 (85)	3.2	8.8	19.6	18.1	22.0	16.5	3.9	7.9
	여성 (67)	8.3	8.5	17.2	15.0	19.5	14.2	12.3	4.9
연	령								
	20대 (25)	7.1	21.4	28.6	28.6	14.3	0.0	0.0	0.0
	30대 (33)	10.0	12.0	22.0	20.0	26.0	10.0	0.0	0.0
	40대 (38)	3.8	5.8	19.2	17.3	34.6	19.2	0.0	0.0
	50대 (32)	0.0	5.0	15.0	5.0	15.0	30.0	20.0	10.0
	60대 이상 (24)	7.1	0.0	7.1	14.3	7.1	14.3	21.4	28.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9)	4.8	7.8	20.9	24.9	11.0	18.6	6.0	6.0
	대졸 (102)	5.0	8.0	21.1	14.9	20.8	15.6	8.0	6.6
	대학원졸 이상 (21)	8.5	13.1	3.4	14.4	34.7	10.9	7.5	7.5
직	업								
	자영업 (15)	0.0	0.0	9.6	4.4	20.1	10.5	22.0	33.4
	블루칼라 (18)	7.3	3.7	22.2	25.8	28.3	4.0	8.7	0.0
	화이트칼라 (91)	4.2	12.3	21.1	17.2	20.7	15.6	3.5	5.6
	가정주부 (19)	12.8	3.5	11.0	14.2	15.9	24.6	18.0	0.0
	학생 (4)	0.0	0.0	0.0	50.0	50.0	0.0	0.0	0.0
	무직/기타 (5)	13.2	13.2	29.0	0.0	0.0	44.6	0.0	0.0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25)	0.0	0.0	6.3	6.3	5.7	27.9	20.4	33.5
	서리집사 (27)	0.0	0.0	15.2	21.0	14.0	37.9	12.0	0.0
	직분 없었음 (100)	8.3	13.1	22.6	18.2	26.6	6.4	3.2	1.6

⊙ 대학생 시절인 20대라는 응답이 2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교 때 18.6%, 고등학교 때, 16.7%, 30대 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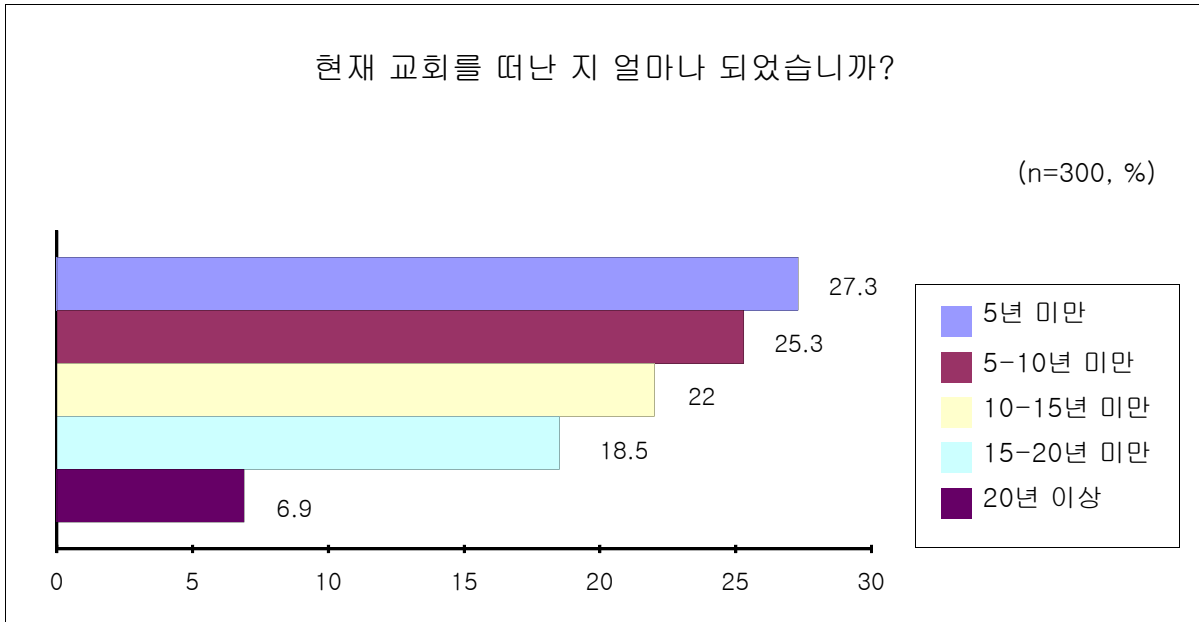
6. 교회 이탈 시점



	사례수	고등학교 이전	고등학교 졸업 후	30대	40대	50대 이후	
		%	%	%	%	%	
전 체	(316)	20.0	23.4	25.0	16.4	15.3	
성 별	남성	(159)	15.7	23.8	27.8	15.9	16.7
	여성	(157)	24.4	22.9	22.1	16.8	13.8
연 령	20대	(61)	50.0	50.0	0.0	0.0	0.0
	30대	(73)	33.6	31.8	34.5	0.0	0.0
	40대	(80)	10.0	19.1	50.9	20.0	0.0
	50대	(60)	0.0	7.9	15.8	42.1	34.2
	60대 이상	(41)	0.0	0.0	8.3	25.0	66.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16.9	16.9	20.3	19.5	26.4
	대졸	(219)	20.4	26.0	27.0	12.9	13.8
	대학원졸 이상	(41)	22.2	18.6	20.6	30.6	8.1
직 업	자영업	(27)	8.0	19.2	5.5	11.4	55.9
	블루칼라	(30)	15.0	16.3	46.4	5.3	16.9
	화이트칼라	(181)	20.2	26.3	26.7	20.3	6.4
	가정주부	(39)	10.5	10.6	29.9	23.1	26.0
	학생	(15)	52.2	47.8	0.0	0.0	0.0
	무직/기타	(25)	32.7	20.1	14.7	5.8	26.7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0.0	0.0	16.5	18.9	64.6	
서리집사	(48)	0.0	0.0	20.7	58.7	20.6	
직분 없었음	(232)	27.3	31.9	27.2	7.2	6.3	

⊙ 30대가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20대가 23.4%, 고등학교 이전이 20.0%, 40대가 16.4%, 50대 이후가 15.3% 순이었음. 남성은 30대(27.8%), 여성은 고등학교 이전(24.4%)이 가장 많아 차이가 있었음. 안수집사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50대 이후(64.4%), 서리집사였던 사람들은 40대(58.7%)에 떠난 사람들이 과반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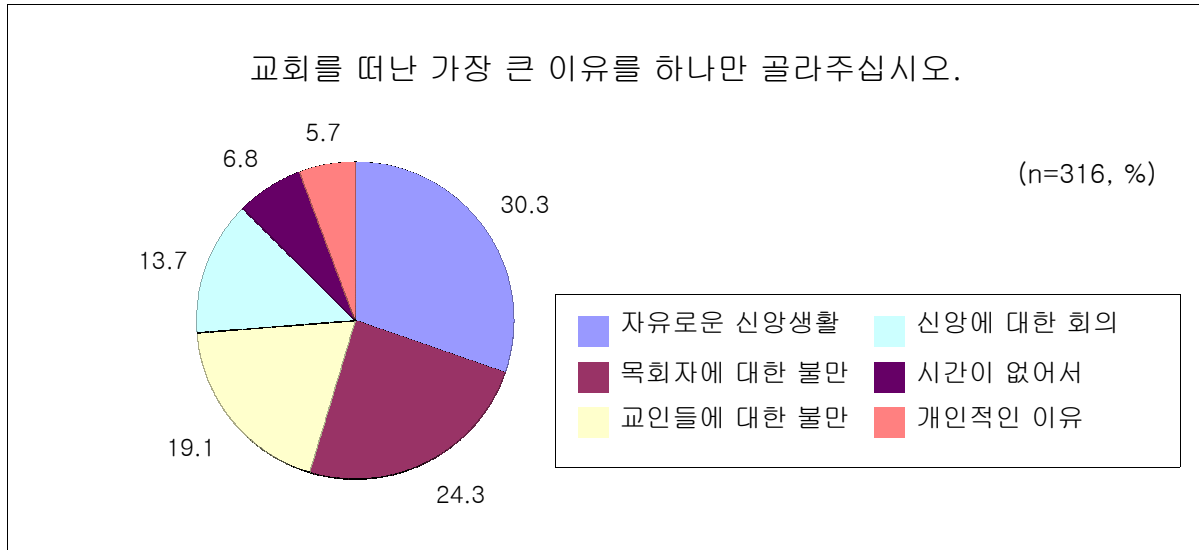
7. 교회 이탈 경과 시간



	사례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년 이상	평균 (년)
		%	%	%	%	%	
전 체	(300)	27.3	25.3	22.0	18.5	6.9	9.3
성 별	남성 (149)	27.0	26.1	20.6	17.8	8.5	9.5
	여성 (151)	27.6	24.6	23.4	19.1	5.3	9.0
연 령	20대 (61)	35.3	23.5	29.4	11.8	0.0	6.9
	30대 (73)	27.3	32.7	12.7	18.2	9.1	8.3
	40대 (72)	15.0	27.0	31.0	21.0	6.0	10.8
	50대 (57)	30.6	16.7	19.4	19.4	13.9	10.1
	60대 이상 (36)	33.3	23.8	14.3	23.8	4.8	10.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4)	25.3	15.9	16.4	33.9	8.5	10.5
	대졸 (209)	29.4	28.0	21.2	15.3	6.0	8.7
	대학원졸 이상 (38)	18.5	23.9	34.1	14.3	9.2	10.6
직 업	자영업 (23)	47.1	23.7	26.4	0.0	2.8	7.3
	블루칼라 (28)	26.1	19.5	19.7	16.1	18.7	10.9
	화이트칼라 (176)	23.4	27.6	22.6	19.5	6.9	9.2
	가정주부 (35)	24.4	25.3	17.2	29.3	3.9	11.0
	학생 (15)	47.8	11.9	23.9	11.9	4.4	6.8
	무직/기타 (23)	29.7	25.9	21.4	20.2	2.8	8.4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40.7	22.3	15.3	13.0	8.6	6.7
	서리집사 (46)	35.9	21.7	17.0	14.7	10.7	8.7
	직분 없었음 (218)	23.2	26.6	24.2	20.2	5.8	9.8

⊙ 5년 미만이 2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이 25.3%, 10-15년 미만이 22.0%, 15-20년 미만이 18.5%, 20년 이상이 6.9% 순이었으며, 평균은 9.3년이었습니다. 직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교회를 떠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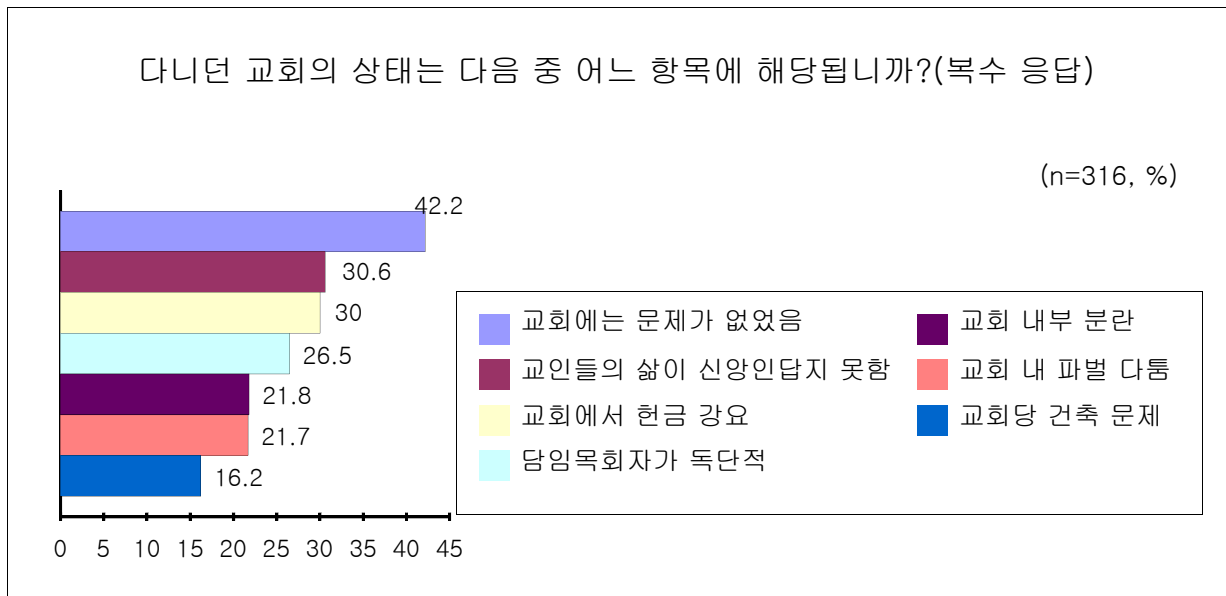
8. 교회를 떠난 이유



		사례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회자에 대한 불만	교인들에 대한 불만	신앙에 대한 회의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인 이유
			%	%	%	%	%	%
전체		(316)	30.3	24.3	19.1	13.7	6.8	5.7
성별	남성	(159)	35.3	24.4	12.9	16.5	7.1	3.3
	여성	(157)	25.1	24.1	25.4	10.8	6.5	8.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41.6	18.4	18.4	9.7	9.4	1.3
	대졸	(219)	29.0	24.9	19.1	14.9	5.7	6.4
	대학원졸 이상	(41)	21.2	29.0	20.5	12.8	8.8	7.7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22.0	46.7	31.4	0.0	0.0	0.0
	서리집사	(48)	17.8	33.2	21.4	16.5	4.9	6.3
	직분 없었음	(232)	34.1	18.9	16.7	15.3	8.3	6.4
교회이탈전 구원확신유무	분명히 있었다	(152)	25.4	31.3	20.3	7.5	6.5	9.1
	뚜렷하지 않다	(153)	34.1	19.0	17.3	19.9	6.5	2.7
	없었다	(11)	44.6	0.0	28.1	13.0	14.2	0.0
교회이탈전 출석교회규모	99명 이하	(44)	39.1	18.6	9.6	16.3	6.2	10.2
	100~299명	(99)	32.5	24.8	20.3	10.2	6.7	5.4
	300~999명	(102)	24.7	31.6	21.6	13.5	5.3	3.3
	1000명 이상	(70)	29.7	16.4	19.8	17.2	9.4	6.5
교회이탈전 출석교회교단	예장합동	(61)	26.4	30.4	14.7	12.5	3.8	12.1
	예장통합	(49)	30.7	27.1	23.3	12.4	1.4	5.1
	예장기타	(14)	20.9	11.7	27.9	21.5	18.0	0.0
	기장	(77)	32.8	32.6	15.0	7.6	8.1	3.9
	감리교	(50)	31.7	19.0	23.5	16.2	6.8	1.4
	기타	(38)	26.1	15.7	21.7	21.2	13.4	1.9
	모름	(29)	38.1	10.6	17.3	16.6	4.8	12.5

⊙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가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3%,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19.1%, “신앙에 대한 회의”가 13.7%, “시간이 없어서”가 6.8% 등으로 나왔다. 남성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35.3%), 여성은 “교인들에 대한 불만”(25.4%)이 가장 많았다. 고졸 이하의 학력자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41.6%),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자들은 “목회자에 대한 불만”(29.0%)이 가장 많았다. 교회출석 당시 직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한 불만으로, 무직분자들은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한 불만”(31.3%),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34.1%)로 이유가 달랐다.

9. 교회 이탈 전 출석 교회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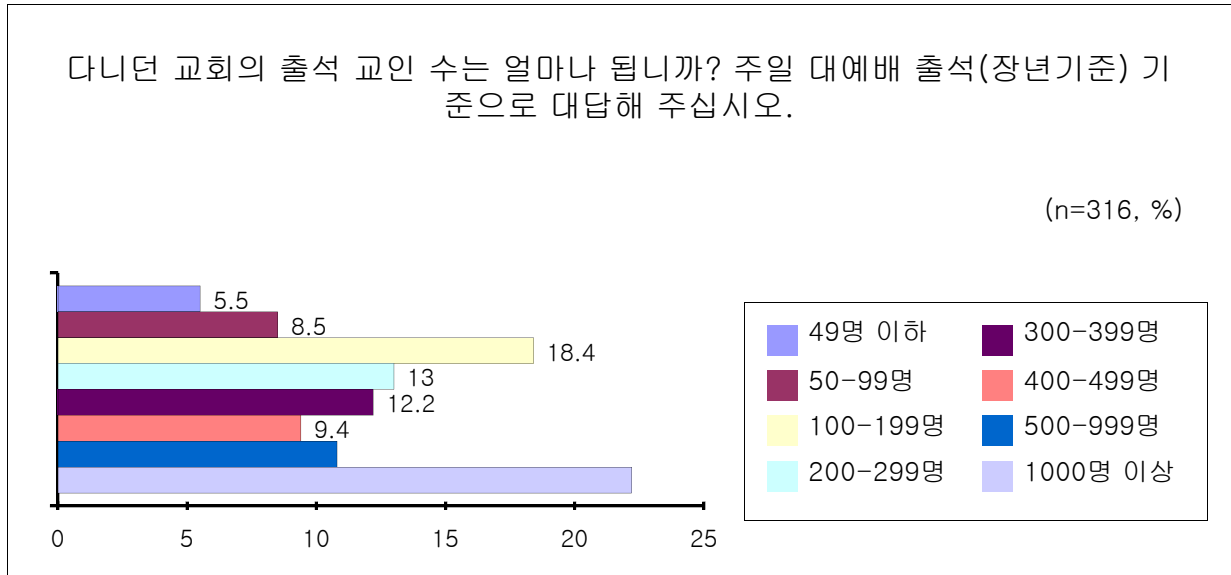


	사례수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다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인답지 못했다	교회에서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담임 목회자가 독단적이었다	교회 내부에 분란/갈등이 심했다	교회 내 파벌 다툼이 심하였다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이 있었다
		%	%	%	%	%	%	%
전체	(316)	42.2	30.6	30.0	26.5	21.8	21.7	16.2
성별	남성 (159)	44.6	28.2	27.2	28.7	23.2	20.7	14.3
	여성 (157)	39.8	33.0	32.8	24.3	20.3	22.6	18.1
연령	20대 (61)	61.8	23.5	17.6	17.6	14.7	20.6	14.7
	30대 (73)	42.7	39.1	32.7	20.0	21.8	21.8	14.5
	40대 (80)	40.0	28.2	27.3	21.8	21.8	20.9	12.7
	50대 (60)	39.5	31.6	28.9	42.1	23.7	18.4	21.1
	60대 이상 (41)	20.8	29.2	50.0	37.5	29.2	29.2	20.8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47.0	22.1	30.1	26.4	10.8	10.0	14.4
	대졸 (219)	42.9	30.4	29.4	25.8	24.6	24.6	15.1
	대학원졸 이상 (41)	32.1	43.2	32.8	30.4	21.8	22.2	24.6
교회이탈전 출석교회규모	99명 이하 (44)	63.1	13.2	19.5	18.1	8.7	3.6	3.6
	100~299명 (99)	42.7	32.1	29.6	26.1	13.6	19.1	17.2
	300~999명 (102)	32.7	32.9	40.6	36.5	34.2	26.0	22.9
교회이탈전 출석교회교단	1000명 이상 (70)	42.5	36.1	21.6	17.9	23.3	30.2	12.9
	예장합동 (61)	45.0	39.1	19.1	30.6	25.0	27.9	10.0
	예장통합 (49)	30.5	36.8	35.0	32.2	16.9	23.8	23.8
	예장기타 (14)	27.9	49.8	28.3	33.6	39.4	40.0	12.7
	기장 (77)	36.6	24.5	38.5	25.7	23.3	18.7	9.8
	감리교 (50)	42.8	19.0	37.7	25.6	21.7	20.0	29.5
	기타 (38)	60.3	34.2	15.5	15.9	15.7	16.3	12.9
모름 (29)	53.6	24.4	28.0	22.4	18.7	14.1	16.1	
출석교회 지역규모	대도시 (219)	37.3	31.9	30.9	29.0	22.4	21.2	17.0
	중소도시/읍면 (97)	53.4	27.6	28.0	21.0	20.4	22.6	14.3

⊙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을 제외하면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인답지 못했다”와 “교회에서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였다”가 각각 30.6%와 3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담임 목회자가 매우 독단적이었다”가 26.5% 나왔으며 교회당 건축 문제도 16.2%가 나왔음.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은 교인들의 삶에 대한 불만이 43.2%로 가장 높았음. 교회 규모가 100명 미만의 소형 교회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63.1%로 매우 높게 나왔고, 300~1000명 미만의 중형교회에서는

헌금 강요가 40.6%로 가장 높게 나왔고 교회당 건축 문제도 22.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또한 교인 수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에서는 교회 내 파벌 싸움이 30.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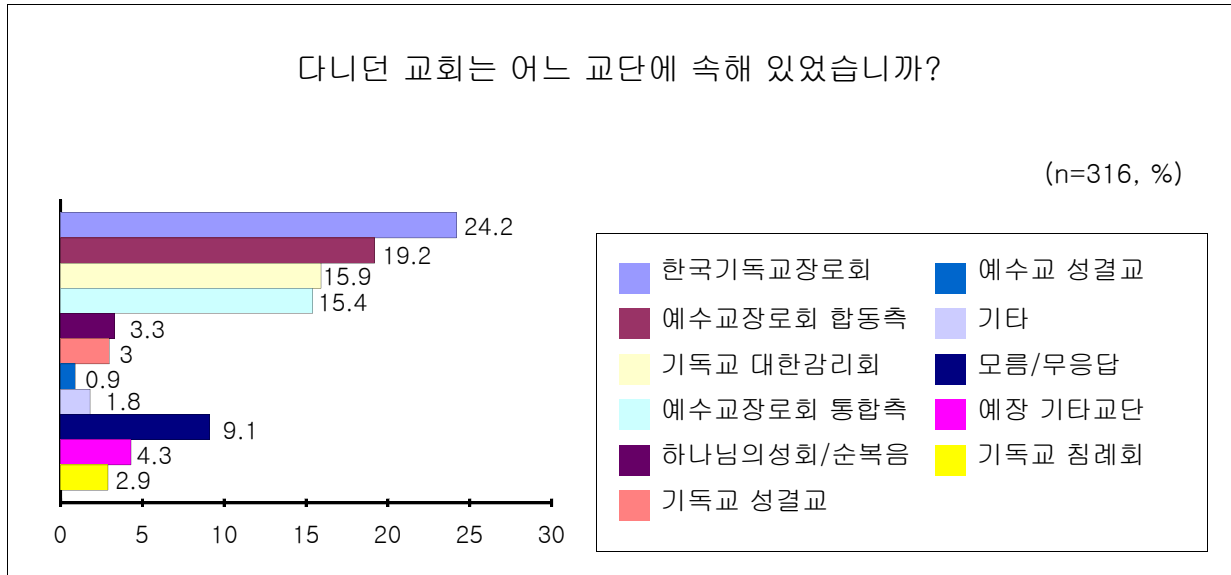
10. 교회 이탈 전 출석 교회 규모



	사례수	49명 이하	50~99명	100~199명	200~299명	300~399명	4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	%	%	%	%	%	%	%	
전체	(316)	5.5	8.5	18.4	13.0	12.2	9.4	10.8	22.2	
성별	남성	(159)	5.0	6.3	19.3	16.7	11.6	8.8	11.7	20.5
	여성	(157)	6.0	10.6	17.5	9.2	12.7	10.0	9.9	23.9
연령	20대	(61)	11.8	14.7	11.8	8.8	5.9	5.9	14.7	26.5
	30대	(73)	1.8	12.7	23.6	9.1	20.0	3.6	9.1	20.0
	40대	(80)	.9	4.5	17.3	20.0	10.9	15.5	10.9	20.0
	50대	(60)	7.9	7.9	15.8	15.8	10.5	15.8	10.5	15.8
	60대 이상	(41)	8.3	0.0	25.0	8.3	12.5	4.2	8.3	33.3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9.0	10.6	23.1	3.9	15.3	9.0	8.6	20.4
	서리집사	(48)	7.0	6.4	12.7	10.9	16.7	11.2	16.1	19.1
	직분 없었음	(232)	4.7	8.5	18.8	14.8	10.8	9.1	10.1	23.1
교회이탈전 출석교회교단	예장합동	(61)	4.0	5.3	19.5	11.8	8.5	10.9	11.7	28.4
	예장통합	(49)	10.2	12.7	13.8	12.1	12.5	9.0	12.4	17.3
	예장기타	(14)	0.0	16.6	10.7	12.7	22.4	0.0	4.9	32.8
	기장	(77)	2.9	5.9	19.7	3.6	18.7	10.2	18.4	20.5
	감리교	(50)	3.6	7.2	17.7	29.1	7.6	16.0	6.4	12.4
	기타	(38)	6.6	12.0	27.0	14.2	9.2	0.0	1.8	29.3
	모름	(29)	12.3	8.6	14.1	12.2	9.3	10.5	8.6	24.5
출석교회 지역규모	대도시	(219)	2.2	7.8	15.7	13.6	15.1	9.0	11.4	25.2
	중소도시/읍면	(97)	13.0	10.0	24.5	11.6	5.7	10.3	9.6	15.3

⊙ 1000명 이상이 2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199명이 18.4%, 100명 이하가 14.0%, 200-299명이 13.0%, 300-399명이 12.2%, 500-999명이 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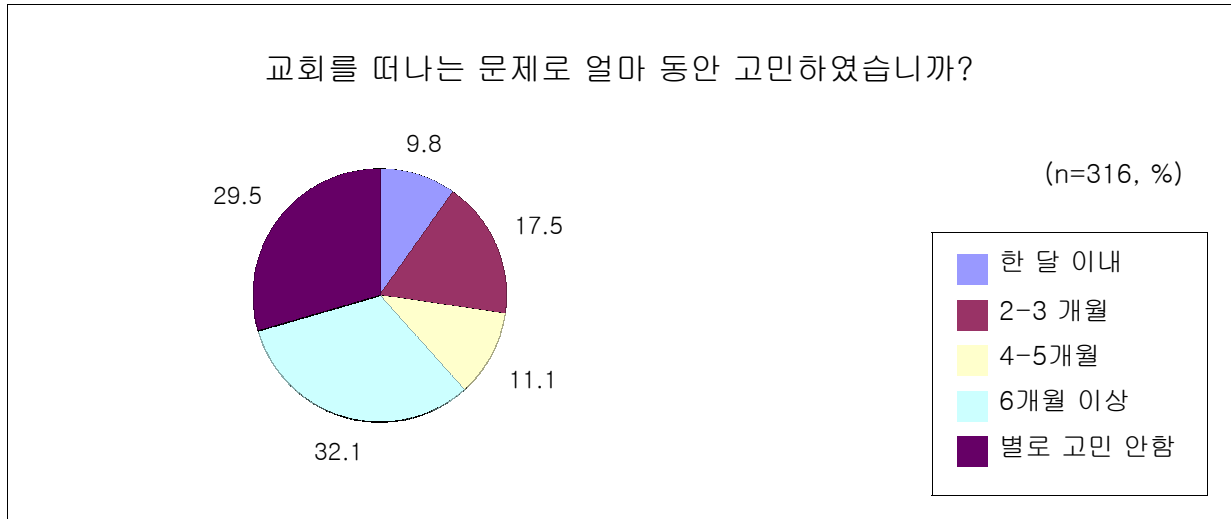
11. 교회 이탈 전 출석 교회 소속 교단



	사례 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예장 기타 교단	하나님의 성회/순복음	기독교 성결교	기독교 침례회	예수교 성결교	기타	모름/무응답
		%	%	%	%	%	%	%	%	%	%	%
전 체	(316)	24.2	19.2	15.9	15.4	4.3	3.3	3.0	2.9	.9	1.8	9.1
성 별	남성 (159)	23.7	21.2	16.7	16.5	2.4	4.1	1.9	2.7	.4	1.6	8.8
	여성 (157)	24.7	17.2	15.0	14.3	6.2	2.5	4.1	3.1	1.4	2.0	9.4
연 령	20대 (61)	17.6	11.8	20.6	17.6	0.0	2.9	2.9	5.9	0.0	5.9	14.7
	30대 (73)	27.3	18.2	10.0	12.7	4.5	4.5	1.8	2.7	1.8	1.8	14.5
	40대 (80)	21.8	21.8	17.3	15.5	4.5	4.5	1.8	4.5	0.0	.9	7.3
	50대 (60)	18.4	26.3	15.8	21.1	5.3	2.6	5.3	0.0	2.6	0.0	2.6
	60대 이상 (41)	41.7	16.7	16.7	8.3	8.3	0.0	4.2	0.0	0.0	0.0	4.2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27.6	12.6	18.4	12.3	5.9	5.3	0.0	0.0	4.0	4.4	9.4
	대졸 (219)	23.8	20.9	14.9	16.1	4.1	2.7	4.0	2.8	.3	1.5	9.1
교회출석시 직분	대학원졸 이상 (41)	22.1	19.0	17.6	16.0	3.4	3.5	1.8	7.8	0.0	0.0	8.9
	안수집사 이상 (37)	38.0	6.3	20.4	10.6	11.0	4.3	4.7	0.0	0.0	0.0	4.7
교회이탈전 구원의확신 유무	서리집사 (48)	22.9	28.2	9.2	28.5	3.3	3.0	3.3	0.0	0.0	0.0	1.5
	직분 없었음 (232)	22.3	19.4	16.5	13.4	3.4	3.2	2.7	4.0	1.3	2.4	11.4
교회이탈전 구원의확신 유무	있었다 (152)	24.7	22.6	16.4	16.7	3.4	1.9	2.7	1.4	.4	2.1	7.7
	뚜렷하지 않다 (153)	22.4	16.3	15.3	13.5	5.5	4.9	3.6	4.7	1.0	1.6	11.2
교회이탈전 출석교회 규모	없었다 (11)	42.2	13.0	16.2	22.7	0.0	0.0	0.0	0.0	6.0	0.0	0.0
	99명 이하 (44)	15.3	12.8	12.2	25.2	5.1	0.0	3.1	5.6	1.5	5.6	13.6
	100~299명 (99)	18.0	19.1	23.7	12.7	3.2	3.1	8.2	.7	2.3	1.4	7.6
	300~999명 (102)	35.3	18.4	14.6	16.1	3.6	1.3	0.0	2.7	0.0	0.0	8.0
1000명 이상 (70)	22.4	24.6	8.9	12.0	6.3	8.5	0.0	4.6	0.0	2.6	10.1	

⊙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4.2%로 가장 많았고, 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 19.2%,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5.4%, 예장 기타 교단이 4.3%, 하나님의 성회/순복음이 3.3% 등의 순이었다. 20대는 감리교단이 가장 많았고, 40대는 기장과 예장 합동측이 똑같이 많았으며, 50대는 예장 합동측이 가장 많았고, 60대는 기장 교단이 41.7%로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안수집사 이상에서도 기장 교단이 38.0%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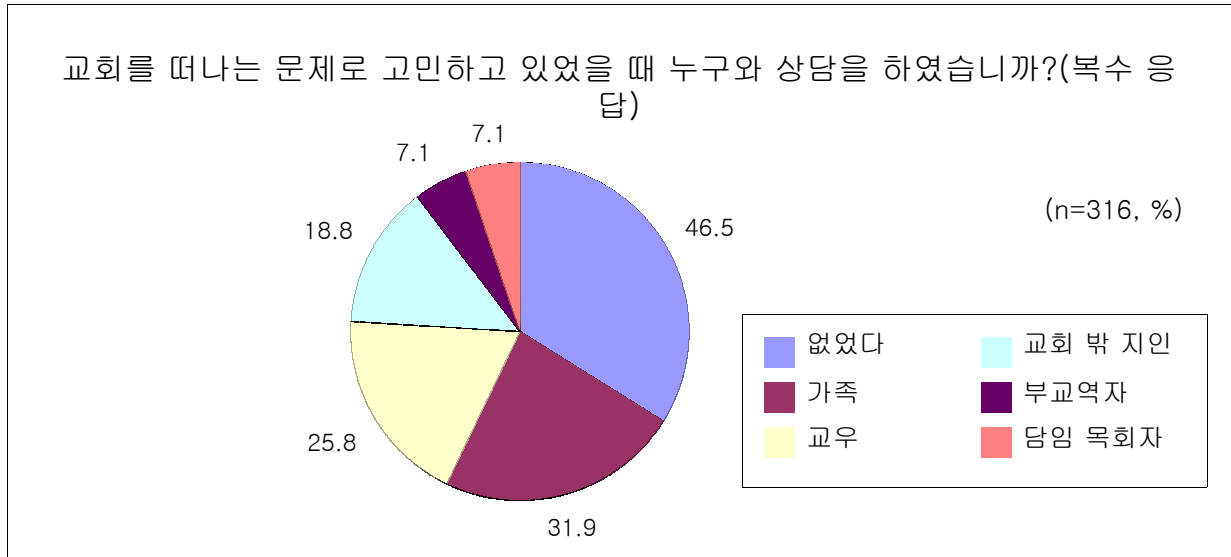
12. 교회 이탈 전 고민 기간



		사례수	한 달 이내	2~3개월	4~5개월	6개월 이상	별로 고민 안함
			%	%	%	%	%
전 체		(316)	9.8	17.5	11.1	32.1	29.5
성 별	남성	(159)	10.8	16.0	14.0	27.0	32.2
	여성	(157)	8.8	19.0	8.3	37.3	26.7
연 령	20대	(61)	17.6	14.7	8.8	17.6	41.2
	30대	(73)	12.7	26.4	6.4	27.3	27.3
	40대	(80)	5.5	17.3	13.6	28.2	35.5
	50대	(60)	7.9	13.2	23.7	34.2	21.1
	60대 이상	(41)	4.2	12.5	0.0	66.7	16.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6.5	16.4	12.9	41.7	22.5
	대졸	(219)	9.4	17.6	11.8	31.4	29.8
	대학원졸 이상	(41)	16.4	18.0	5.3	22.9	37.4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4.7	22.0	14.9	47.1	11.4
	서리집사	(48)	6.7	13.6	21.2	45.5	13.0
	직분 없었음	(232)	11.3	17.6	8.5	27.0	35.7
교회이탈전 구원확신유무	분명히 있었다	(152)	7.8	18.1	12.7	38.3	23.1
	뚜렷하지 않다	(153)	12.5	17.7	10.0	28.4	31.5
	없었다	(11)	0.0	6.0	6.5	0.0	87.5

⊙ 6개월 이상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9.5%, 2-3개월이 17.5% 등의 순으로 나와 상당한 기간 동안 고민한 경험이 있었음. 6개월 이상 고민한 비율은 여성에게서 더 높았고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남성에게서 더 높았음. 나이로는 20대와 40대에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6개월 이상 고민했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많이 나왔음. 학력으로는 고졸 이하에서 6개월 이상 고민했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많이 나왔음. 직분으로는 서리집사와 안수집사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고민했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직분이 없는 응답자들에게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많이 나왔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서는 6개월 이상 고민했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없었다고 응답자들에게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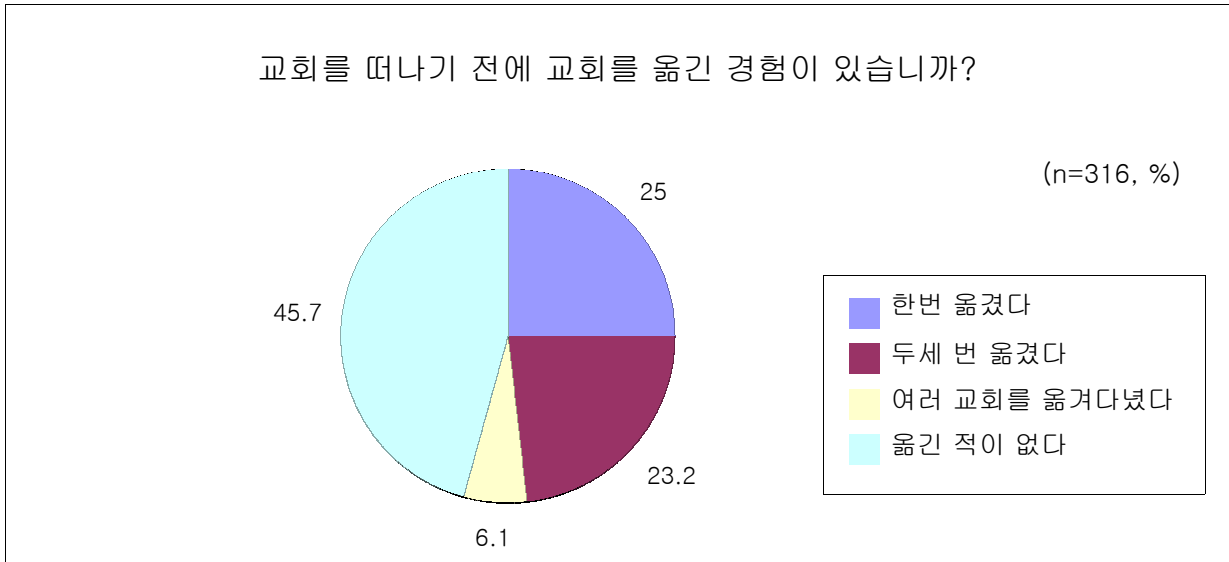
13. 교회 이탈 전 상담 대상



		사례수	없었다	가족	교우	교회 밖 지인	부교역자	담임 목회자
			%	%	%	%	%	%
전 체		(316)	46.5	31.9	25.8	18.8	7.1	7.1
성 별	남성	(159)	47.7	30.3	22.7	17.2	6.1	3.9
	여성	(157)	45.2	33.5	28.8	20.4	8.2	10.3
연 령	20대	(61)	58.8	23.5	29.4	17.6	5.9	2.9
	30대	(73)	48.2	28.2	26.4	18.2	3.6	10.9
	40대	(80)	47.3	32.7	22.7	15.5	8.2	5.5
	50대	(60)	36.8	34.2	31.6	23.7	10.5	5.3
	60대 이상	(41)	37.5	45.8	16.7	20.8	8.3	12.5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48.2	36.2	23.1	9.1	4.4	1.2
	대졸	(219)	44.8	30.6	27.5	21.8	7.9	8.9
	대학원졸 이상	(41)	52.6	33.1	20.0	16.1	7.1	6.0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29.0	49.0	28.3	24.3	15.7	13.3
	서리집사	(48)	27.6	44.2	23.3	31.5	14.6	14.6
	직분 없었음	(232)	53.1	26.6	25.9	15.3	4.3	4.6
교회이탈전 구원확신유무	분명히 있었다	(152)	39.3	39.9	26.6	21.6	7.5	5.9
	뚜렷하지 않다	(153)	51.8	26.3	24.8	16.2	6.8	8.8
	없었다	(11)	71.4	0.0	28.6	16.2	6.5	0.0
교회이탈전 출석교회규모	99명 이하	(44)	63.3	28.0	8.7	9.3	0.0	7.5
	100~299명	(99)	41.8	37.6	26.4	13.3	4.7	3.6
	300~999명	(102)	41.6	29.2	31.8	24.2	12.4	13.2
	1000명 이상	(70)	49.6	30.1	26.8	24.6	7.5	3.0

⊙ 없었다는 응답이 46.5%로 나왔고, 다음으로 가족이 31.9%, 교우 25.8%, 교회 밖 지인 18.8%였으며 부교역자나 담임목회자라는 응답은 7.1%로 가장 적었다. 특히 남성들과 고졸 이하의 학력자들은 부교역자나 담임목회자라는 응답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직분이 있었던 응답자들은 가족이라는 응답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직분이 없었던 응답자들은 없었다는 응답이 평균을 웃돌았다. 교회 규모로는 300-10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나 담임목회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없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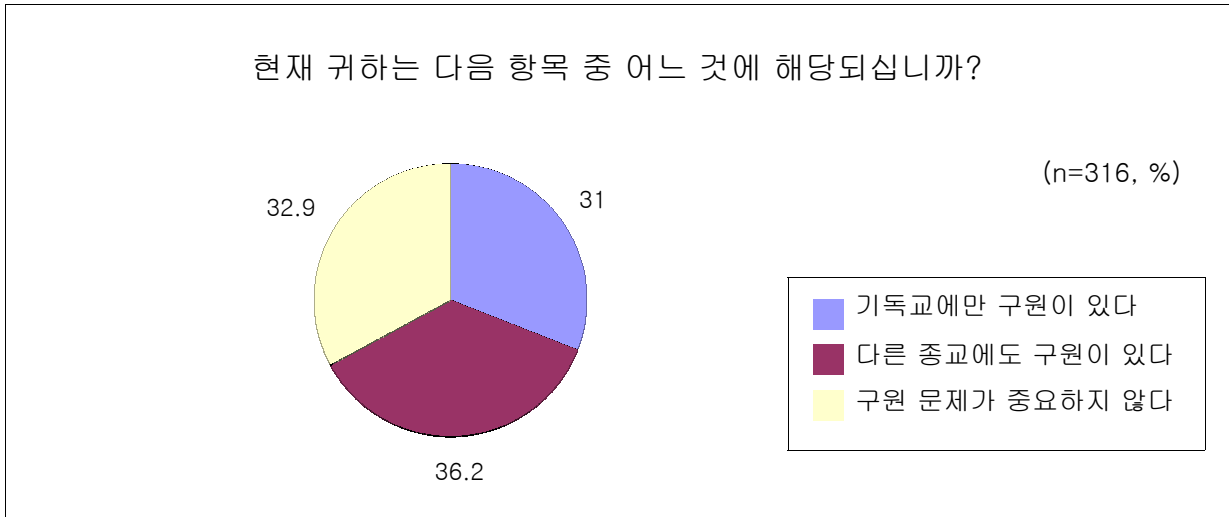
14. 교회 이탈 전 교회 옮긴 경험



		사례수	한번 옮겼다	두세 번 옮겼다	여러 교회를 옮겨다녔다	옮긴 적이 없다
			%	%	%	%
전 체		(316)	25.0	23.2	6.1	45.7
성 별	남성	(159)	26.8	23.6	4.0	45.6
	여성	(157)	23.1	22.9	8.3	45.7
연 령	20대	(61)	26.5	14.7	5.9	52.9
	30대	(73)	19.1	33.6	4.5	42.7
	40대	(80)	23.6	27.3	7.3	41.8
	50대	(60)	23.7	18.4	5.3	52.6
	60대 이상	(41)	37.5	16.7	8.3	37.5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31.6	16.3	4.4	47.7
	대졸	(219)	24.8	21.5	6.1	47.6
	대학원졸 이상	(41)	16.6	42.1	8.9	32.4
직 업	자영업	(27)	12.5	20.7	0.0	66.8
	블루칼라	(30)	6.9	34.8	0.0	58.3
	화이트칼라	(181)	24.8	25.7	6.3	43.2
	가정주부	(39)	28.5	13.9	9.9	47.7
	학생	(15)	52.2	11.9	11.9	23.9
	무직/기타	(25)	39.0	15.5	9.3	36.1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40.0	24.3	4.7	31.0
	서리집사	(48)	24.9	25.7	6.5	42.9
	직분 없었음	(232)	22.6	22.6	6.3	48.6

⊙ “옮긴 적이 없다”는 응답이 45.7%였고, 다음으로 “한번 옮겼다”가 25.0%, “두세 번 옮겼다”가 23.2%, “여러 교회를 옮겨다녔다”가 6.1%로 나옴. 이것으로 볼 때 본래 교회를 자주 옮겨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한 두 교회에 정착해서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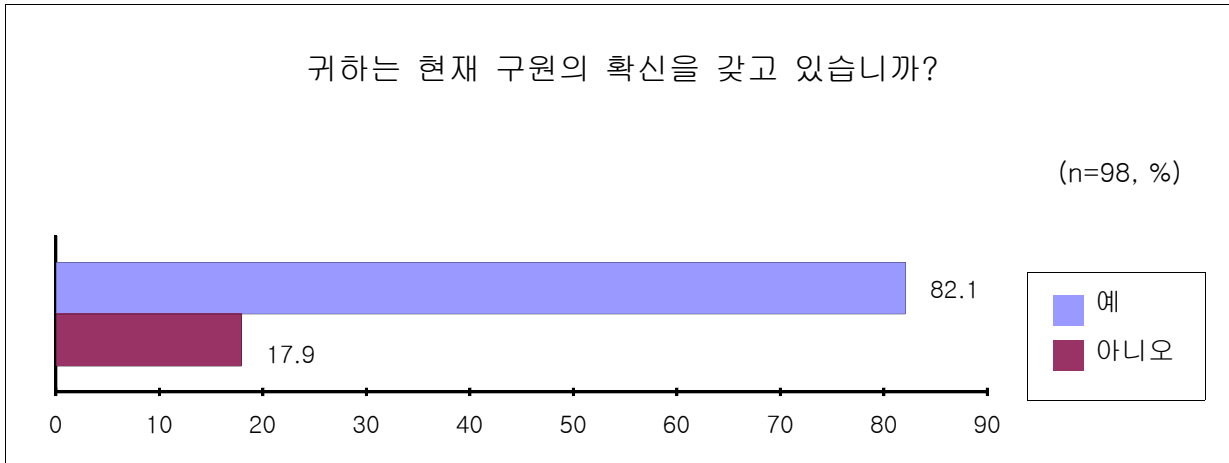
15. 구원 문제에 대한 견해



	사례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	
전 체	(316)	31.0	36.2	32.9	
성 별	남성	(159)	30.7	38.9	30.4
	여성	(157)	31.2	33.4	35.4
연 령	20대	(61)	35.3	23.5	41.2
	30대	(73)	20.0	42.7	37.3
	40대	(80)	30.0	34.5	35.5
	50대	(60)	39.5	39.5	21.1
	60대 이상	(41)	33.3	41.7	25.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37.7	25.6	36.7
	대졸	(219)	26.1	40.7	33.2
	대학원졸 이상	(41)	47.3	26.6	26.1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51.0	30.6	18.4
	서리집사	(48)	38.3	52.0	9.7
	직분 없었음	(232)	26.3	33.8	39.9
교회이탈전 구원확신유무	분명히 있었다	(152)	45.7	37.7	16.5
	뚜렷하지 않다	(153)	18.5	35.5	46.1
	없었다	(11)	0.0	24.9	75.1

⊙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응답자가 31.0%,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응답이 36.2%,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응답이 32.9%로 나옴.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연령에 따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자들에게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안수집사 이상에서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리집사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응답자들의 절반 가까이 (45.7%)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절반 이상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거나 구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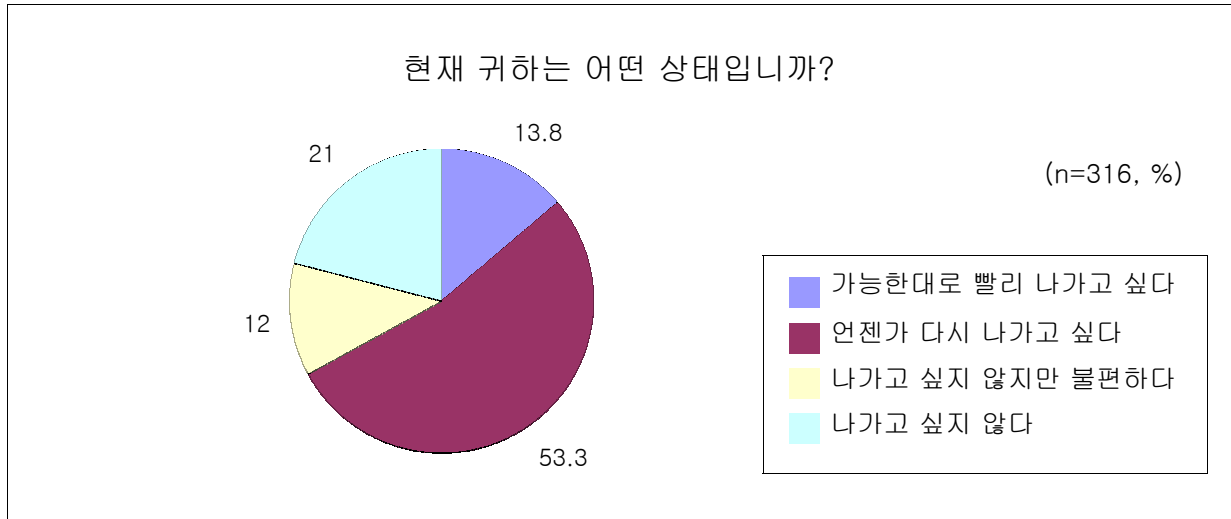
15-1. 현재 구원의 확신 여부



		사례수	예	아니오
			%	%
전 체		(98)	82.1	17.9
성 별	남성	(49)	87.7	12.3
	여성	(49)	76.5	23.5
연 령	20대	(22)	75.0	25.0
	30대	(15)	63.6	36.4
	40대	(24)	78.8	21.2
	50대	(24)	100.0	0.0
	60대 이상	(14)	87.5	12.5
최 중 학 력	고졸 이하	(21)	93.7	6.3
	대졸	(57)	79.8	20.2
	대학원졸 이상	(19)	76.1	23.9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19)	100.0	0.0
	서리집사	(18)	84.4	15.6
	직분 없었음	(61)	75.8	24.2
교회이탈전 구원확신 유무	분명히 있었다	(70)	90.5	9.5
	뚜렷하지 않다	(28)	61.3	38.7

⊙ 현재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응답이 82.1%(전체응답자의 25.3%에 해당), 아니라는 응답이 17.9%였음. 학력에는 반비례, 직분에 따라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냈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90.5%가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했고, 뚜렷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도 61.3%는 현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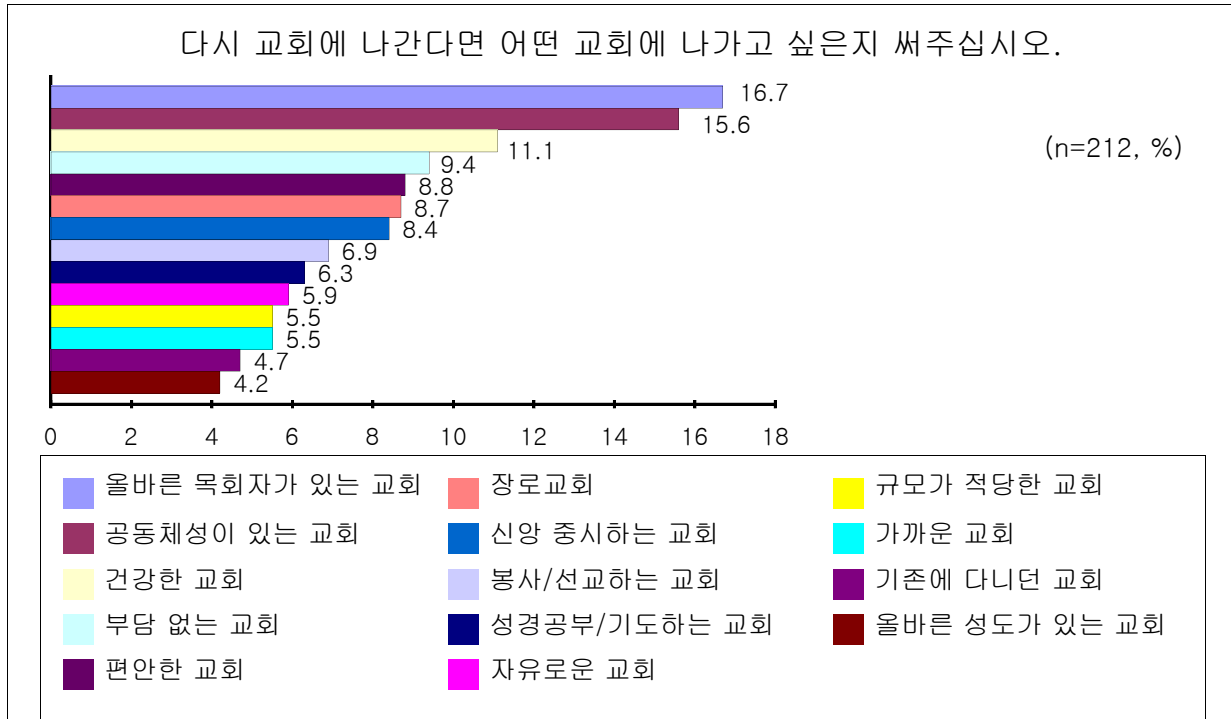
16. 현재 교회 출석에 대한 생각



	사례수	가능한 대로 빨리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불편/불안하다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다	
		%	%	%	%	
전 체	(316)	13.8	53.3	12.0	21.0	
성 별	남성	(159)	13.4	50.7	8.5	27.4
	여성	(157)	14.1	55.9	15.4	14.5
연 령	20대	(61)	11.8	52.9	11.8	23.5
	30대	(73)	12.7	57.3	8.2	21.8
	40대	(80)	10.9	56.4	14.5	18.2
	50대	(60)	13.2	52.6	15.8	18.4
	60대 이상	(41)	25.0	41.7	8.3	25.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14.3	56.4	11.1	18.3
	대졸	(219)	14.0	53.3	11.7	21.0
	대학원졸 이상	(41)	11.9	48.9	14.7	24.5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30.6	48.6	11.4	9.4
	서리집사	(48)	24.6	48.7	14.9	11.8
	직분 없었음	(232)	8.9	54.9	11.5	24.7
거주 지역	서울	(147)	16.2	54.0	14.3	15.4
	경기도	(76)	13.1	52.9	8.5	25.6
	전라도	(30)	11.4	44.8	15.1	28.6
	경상도	(38)	7.8	62.7	8.2	21.3
	충청도/기타	(24)	13.4	45.6	10.4	30.6
교회이탈전 구원확신유무	분명히 있었다	(152)	19.1	55.6	14.7	10.6
	뚜렷하지 않다	(153)	9.5	53.5	10.1	27.0
	없었다	(11)	0.0	19.0	0.0	81.0

⊙ “가능한대로 빨리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응답이 13.8%,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응답이 53.3%로 세 명에 한 명 꼴로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입장임. 전혀 나가고 싶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는 응답이 21.0%였음.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함. 고학력자들과 직분이 없었던 응답자들은 교회에 다시 나갈 의향이 약했음.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에 다시 나갈 의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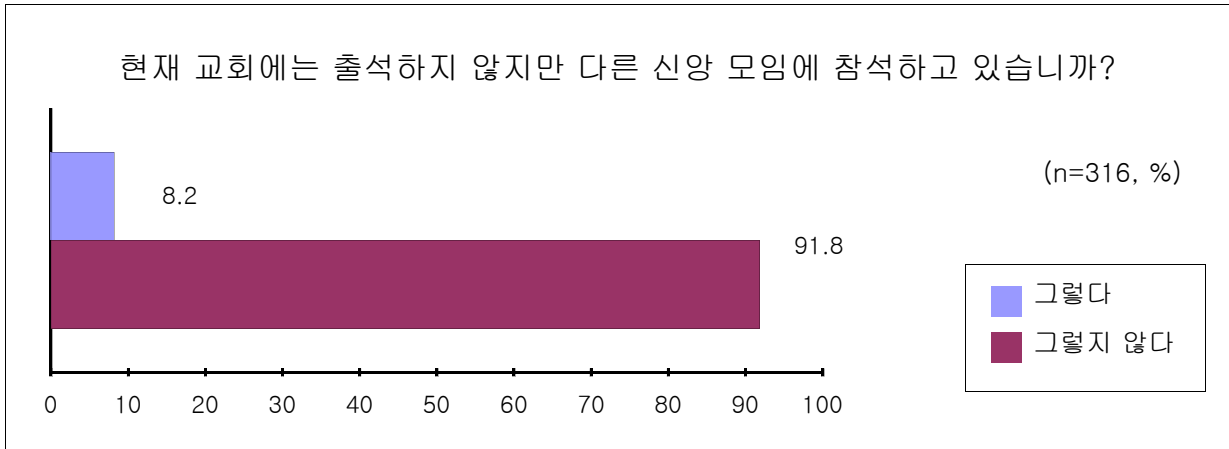
17. 교회 재출석시 희망하는 교회



	사례수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	부정부패 없이 건강한 교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편안한 교회	장로교회	신앙을 중시하는 교회	봉사/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성경공부/기도가 많은 교회	자유로운 교회	규모가 적당한 교회	가까운 교회	기존에 다니던 교회	올바른 성도가 있는 교회
		%	%	%	%	%	%	%	%	%	%	%	%	%	%
전체	(212)	16.7	15.6	11.1	9.4	8.8	8.7	8.4	6.9	6.3	5.9	5.5	5.5	4.7	4.2
성별	남성 (102)	11.2	12.9	6.8	7.9	10.6	11.9	5.3	9.5	6.2	3.3	4.7	6.6	4.7	2.1
	여성 (110)	21.8	18.1	15.0	10.9	7.1	5.7	11.3	4.5	6.3	8.3	6.3	4.5	4.7	6.2
연령	20대 (40)	18.2	18.2	18.2	9.1	9.1	4.5	13.6	0.0	9.1	9.1	0.0	0.0	9.1	13.6
	30대 (51)	22.1	13.0	9.1	15.6	6.5	6.5	5.2	9.1	3.9	10.4	9.1	10.4	7.8	2.6
	40대 (54)	12.2	8.1	9.5	9.5	6.8	12.2	5.4	9.5	8.1	6.8	6.8	2.7	1.4	4.1
	50대 (40)	0.0	20.0	12.0	4.0	16.0	4.0	4.0	8.0	4.0	0.0	0.0	8.0	4.0	0.0
	60대~ (28)	37.5	25.0	6.3	6.3	6.3	18.8	18.8	6.3	6.3	0.0	12.5	6.3	0.0	0.0
최종 학력	고졸 (40)	9.4	18.5	4.5	9.3	8.0	14.2	4.0	4.3	3.6	12.6	5.0	5.7	1.8	0.0
	대졸 (147)	16.8	14.5	14.2	8.8	9.5	8.2	8.3	6.7	7.1	4.2	5.7	6.0	5.2	5.6
	대학원 (25)	27.6	17.3	2.9	13.6	5.8	2.9	15.7	11.9	5.3	5.3	5.6	2.7	6.4	2.7
거주 지역	서울 (103)	16.5	20.7	13.4	7.1	12.4	8.6	3.0	10.5	4.1	3.8	3.3	5.0	6.1	2.4
	경기도 (50)	9.9	15.7	9.3	9.9	10.0	8.2	14.7	4.9	11.6	6.9	11.0	7.5	5.9	2.9
	전라도 (17)	41.6	3.9	0.0	22.7	0.0	3.9	20.0	0.0	4.3	0.0	0.0	0.0	3.9	21.2
	경상도 (27)	9.1	2.5	9.1	11.8	2.7	12.1	11.8	2.5	9.1	11.9	5.0	7.6	0.0	0.0
구원의 확신 유무	충청도 (14)	26.9	16.7	17.2	4.6	0.0	10.1	4.6	4.6	0.0	13.9	10.1	4.6	0.0	9.7
	있었다 (114)	22.0	16.8	6.8	7.7	8.8	11.5	7.1	8.6	9.2	3.0	6.1	6.5	5.8	5.0
구원의 확신 유무	잘모름 (96)	10.8	14.6	15.6	11.7	8.3	5.6	10.1	5.0	3.0	8.7	4.3	4.5	3.5	3.3
	없었다 (2)	0.0	0.0	34.2	0.0	31.5	0.0	0.0	0.0	0.0	34.2	34.2	0.0	0.0	0.0

⊙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1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15.6%), 건강한 교회(11.1%),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9.4%), 편안한 교회(8.8%), 장로교회(8.4%), 신앙을 중시하는 교회(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남성은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가 12.9%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15.6%)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50대는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가 20.0%로 가장 높았음. 고학력자들은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는 응답이 27.6%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응답자들은 건강한 교회라는 응답이 15.6%로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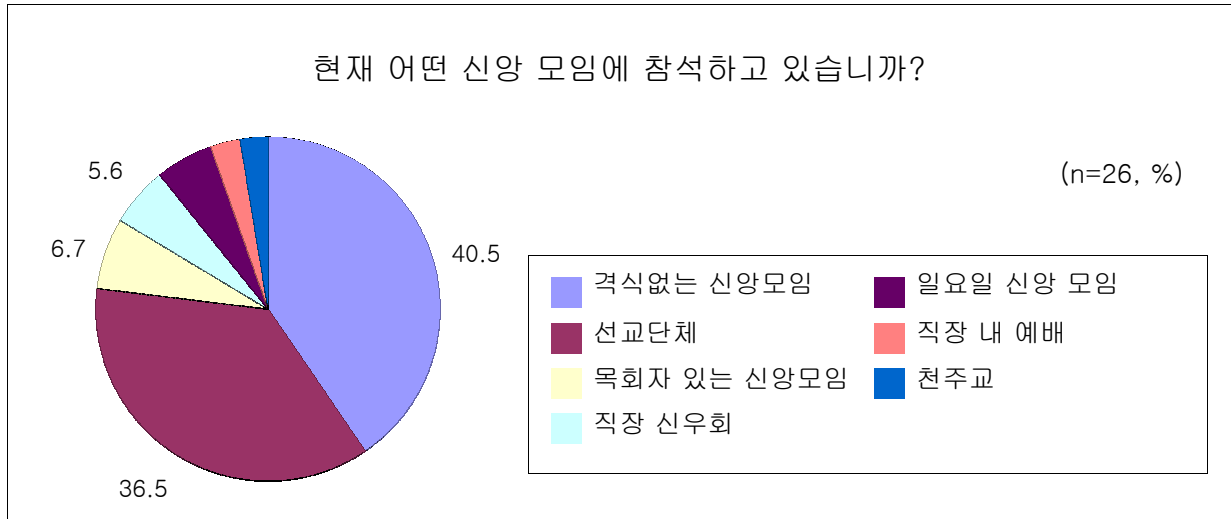
18. 교회 외 신앙모임 참석 여부



	사례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	%	
전 체	(316)	8.2	91.8	
성 별	남성	(159)	7.6	92.4
	여성	(157)	8.7	91.3
연 령	20대	(61)	0.0	100.0
	30대	(73)	5.5	94.5
	40대	(80)	10.9	89.1
	50대	(60)	13.2	86.8
	60대 이상	(41)	12.5	87.5
최 종 학 력	고졸 이하	(56)	4.4	95.6
	대졸	(219)	8.6	91.4
	대학원졸 이상	(41)	10.9	89.1
직 업	자영업	(27)	17.9	82.1
	블루칼라	(30)	2.2	97.8
	화이트칼라	(181)	10.4	89.6
	가정주부	(39)	4.1	95.9
	학생	(15)	0.0	100.0
	무직/기타	(25)	0.0	100.0
교회출석시 직분	안수집사 이상	(37)	24.3	75.7
	서리집사	(48)	14.4	85.6
	직분 없었음	(232)	4.3	95.7
거 주 지 역	서울	(147)	7.3	92.7
	경기도	(76)	12.1	87.9
	전라도	(30)	4.4	95.6
	경상도	(38)	6.4	93.6
	충청도/기타	(24)	8.7	91.3
교회이탈전 구원확신 유무	분명히 있었다	(152)	10.6	89.4
	뚜렷하지 않다	(153)	6.4	93.6
	없었다	(11)	0.0	100.0

⊙ 그렇다는 응답이 8.2%로 많지 않았음. 40대 이상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았고, 학력과 비례하였음.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그리고 안수집사 이상에서 평균보다 높았음. 경기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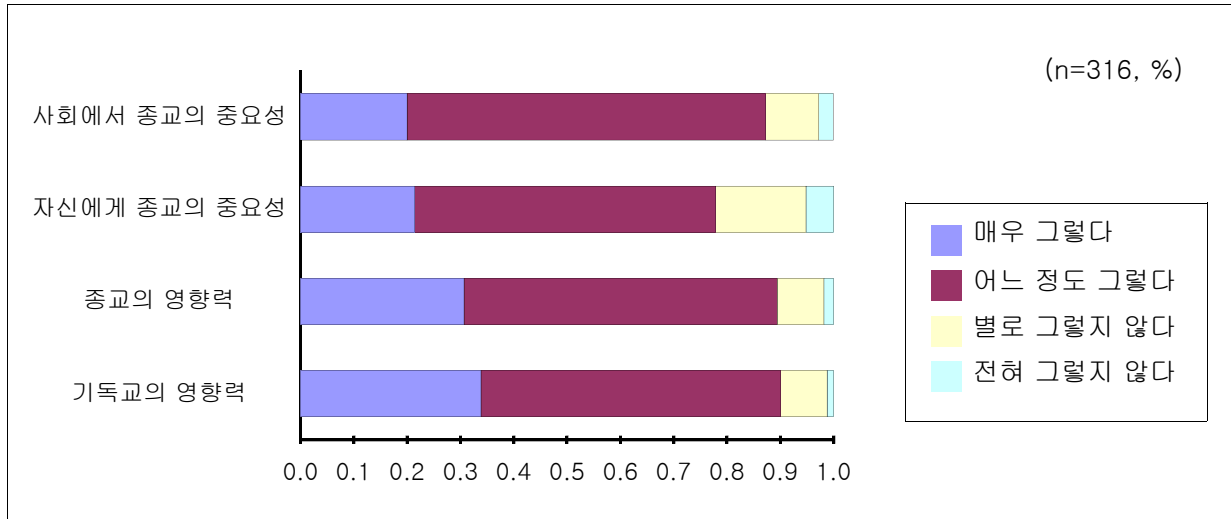
19. 참석하는 신앙 모임



	사례수	격식 없는 신앙 모임	선교단체	목회자가 인도하는 신앙 모임	직장 신우회	일요일에 모이는 신앙 모임	직장 내 예배	천주교
		%	%	%	%	%	%	%
전 체	(26)	40.5	36.5	6.7	5.6	5.4	2.8	2.6
성 별	남성 (12)	48.8	19.7	14.2	6.0	11.4	0.0	0.0
	여성 (14)	33.0	51.5	0.0	5.3	0.0	5.3	4.9
연 령	30대 (4)	33.3	33.3	0.0	0.0	16.7	0.0	16.7
	40대 (9)	66.7	0.0	0.0	16.7	8.3	8.3	0.0
	50대 (8)	20.0	80.0	0.0	0.0	0.0	0.0	0.0
	60대 이상 (5)	33.3	33.3	33.3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 (11)	27.8	65.5	0.0	6.8	0.0	0.0	0.0
	경기도 (9)	39.4	26.0	18.8	7.9	7.9	0.0	0.0
	전라도 (1)	0.0	0.0	0.0	0.0	50.0	0.0	50.0
	경상도 (2)	100.0	0.0	0.0	0.0	0.0	0.0	0.0
	충청도/기타 (2)	65.8	0.0	0.0	0.0	0.0	34.2	0.0

⊙ 격식 없는 신앙모임(40.5%)과 선교단체(36.5%)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목회자가 인도하는 신앙 모임, 직장 신우회, 일요일에 모이는 신앙 모임 등이 있었음. 남성은 격식 없는 신앙 모임에 여성은 선교단체에 더 많이 참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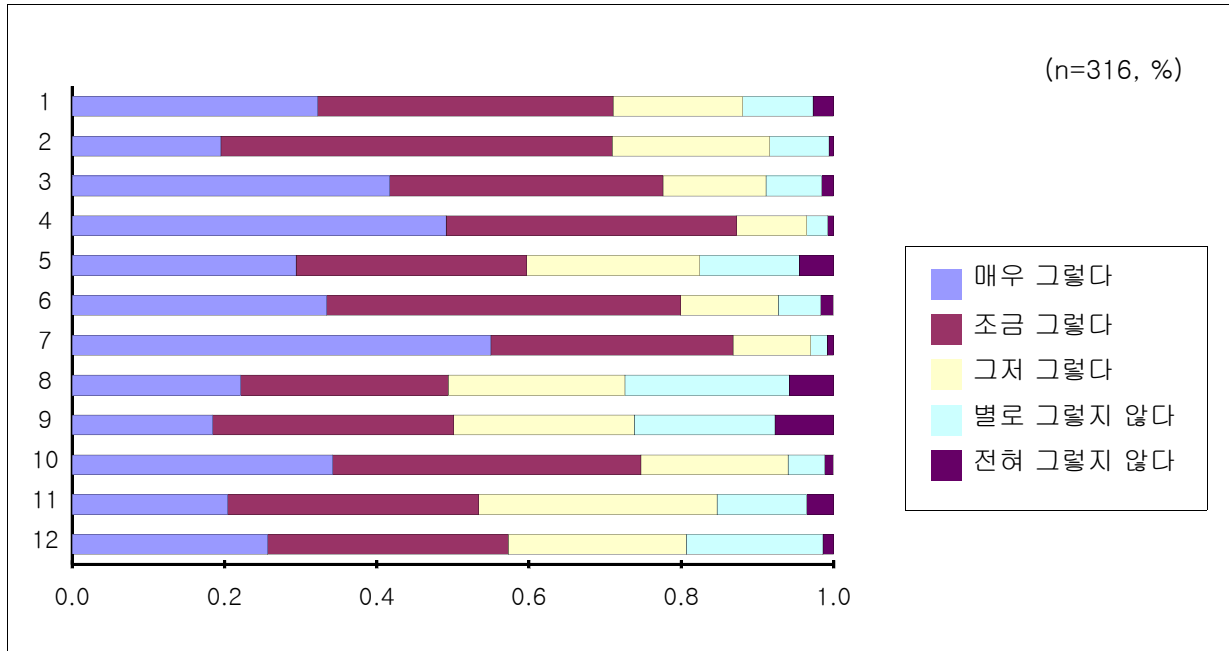
20. 종교에 대한 견해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어느 정도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긍정 ((①+②))	부정 ((③+④))	평균
		%	%	%	%	%	%	4점척도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중요하다	(316)	20.0	67.3	10.0	2.8	87.3	12.7	3.04
자신에게 종교가 중요하다	(316)	21.4	56.5	16.9	5.2	78.0	22.0	2.94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크다	(316)	30.7	58.8	8.8	1.8	89.4	10.6	3.18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다	(316)	33.8	56.2	8.7	1.2	90.1	9.9	3.23

⊙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 87.3% 긍정률에 평균 3.04, 자신에게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 78.0% 긍정률에 평균 2.94,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에 대해 89.4%의 긍정률에 평균 3.18,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 90.1%의 긍정률에 평균 3.23으로 나왔음.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중요하고 영향력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종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음.

21. 교회와 신앙에 대한 견해



	사례 수	⑤ 매우 그렇다	④ 조금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BOT2 (①+②)	TOP2 (④+⑤)	평균 5점 척도
		%	%	%	%	%	%	%	
1. 신앙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316)	32.3	38.8	17.0	9.3	2.7	11.9	71.1	3.89
2. 성경에 대하여 나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316)	19.5	51.4	20.7	7.8	.6	8.4	70.9	3.81
3.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16)	41.7	35.9	13.5	7.3	1.6	8.9	77.6	4.09
4.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16)	49.1	38.1	9.2	2.8	.8	3.6	87.2	4.32
5. 교회에 다녔을 때 신앙을 강요받는다느 느낌을 받았다	(316)	29.4	30.3	22.7	13.1	4.5	17.6	59.7	3.67
6.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16)	33.4	46.5	12.8	5.6	1.7	7.3	79.9	4.04
7. 교회 안에서도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6)	55.0	31.8	10.2	2.2	.8	3.0	86.8	4.38
8. 통성 기도 시간에 불편함을 느꼈다	(316)	22.1	27.3	23.2	21.6	5.8	27.4	49.4	3.38
9.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316)	18.4	31.7	23.7	18.5	7.7	26.2	50.2	3.35
10. 신앙은 반드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16)	34.2	40.5	19.3	4.8	1.2	6.0	74.7	4.02
11. 교회 안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16)	20.4	33.0	31.3	11.7	3.6	15.4	53.3	3.55
12. 한국 교회의 모습이 별로 공동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316)	25.7	31.7	23.4	18.0	1.4	19.3	57.3	3.62

⊙ 교회 안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교회 안의 다양한 견해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목회자에 대한 무조건 순종은 부적절함,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실천에 대한 동의율이 높았음. 면접 조사에서 발견한 통성 기도에 대한 불편함이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담감, 신앙의 강요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높지 않았음.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특성은 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교회내 민주화에

대한 의향은 높게 나옴.

IV. 결론 및 제언

- 조사 결과 교회출석 시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85명으로 26.7%를 차지하였고, 교회 다닌 기간이 평균은 14.2년으로 나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평균 10년 이상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었음. 또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다는 응답이 48.1%였고, 전체 응답자에서 네 명 중 한 명 꼴로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회를 떠난 후 경과 시간이 5년 미만이 27.3%로 가장 많았고, 평균은 9.3년이었던 점, 특히 세 명 중에 두 명은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다는 입장이 나 신앙모임에는 91.8%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교회를 떠난 이유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가 30.3%로 가장 많았으나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3%로 나왔으며 특히 고학력, 직분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목회자의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응답이 많은 점에 주목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떠나기 전에 다녔던 교회에 대해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인답지 못했다”와 “교회에서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하였다”가 각각 30.6%와 3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담임 목회자가 매우 독단적이었다”가 26.5% 나온 것이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이 문제로 고민을 할 때 담임목회자나 부교역자가 상담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 교회에 다시 나갈 경우 가고 싶은 교회에 대해서도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1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교회(15.6%), 건강한 교회(11.1%)라는 응답이 나온 것이 이를 방증함.

-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견해에서 교회 안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교회 안의 다양한 견해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목회자에 대한 무조건 순종은 부적절함,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실천에 대한 동의율이 높게 나온 점은 과거와 달리 맹목적인 충성을 하지 않고 교회가 공동체라 하더라도 획일적인 전체주의가 아니라 협의와 조정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교회의 제도화(신학적으로는 교권화)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됨.⁴⁾

4) 이에 대하여는 <부록>에 있는 정재영, “가나안 성도, 그들은 누구인가?”의 내용을 참고할 것.

“가나안 성도를 통해 본 현대인의 영성” 51

조 성 돈(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상당히 보편적으로 들릴 정도로 한국교회에서 이들의 존재가 꽤 넓게 자리하고 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⁶⁾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이들이 누구이고, 왜 이러한 현실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교회가 무엇을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가나안 성도,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한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는 과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이들을 신앙인이라고,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더 나아가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나 신학하는 모습이 교회가 정해주고 있는 테두리를 오고가고 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인터뷰 과정에서 만나는 이들은 어쩌면 다른 복음이나 무신론을 오가고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에게 우리가 기독교성을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이었다.

본고는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바른교회아카데미’의 후원으로 목회사회학연구소가 진행했던 가나안 성도 18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가나안 교회’ 세 곳에 대한 참여관찰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1. 가나안 성도의 출현

가나안 성도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된 분들도 있었지만 대개 이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앙적 배경을 묻는 첫 질문에 이들은 정말 순탄한 중고등부 시절을 이야기한다. 다수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 중고등부 시절에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했다고도 하고, 별 문제가 없었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는 점층적으로 그 순탄했던 신앙의 여정에 의문을 품게 되고 다양한 책들을 접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와 교회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비리나 문제 등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에 목회사회학연구소에서는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개신교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는데 비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사고의 변화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⁷⁾ 즉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변화되어진 자신들의 사고와 그 사고를 받아주지 않는 교회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세대들의 변화를 이 교회가 받아주지 못한 결과가 바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이 산업화의 시기에 많은

5) 본고는 2010년 바른교회아카데미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을 보완하였다.

6) 2012년 학원복음화협의회가 목회사회학연구소의 자문으로 글로벌리서치와 행한 ‘2012 한국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기독교인이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들은 1.4%로 조사되었다. 이들을 모두 가나안성도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음을 알려 주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학원복음화협의회, ‘제6회 캠퍼스사역 컨퍼런스 - 청년사역, 길을 묻다’ 자료집. 117.

7) 조성돈, 정재영 엮음,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 2007)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로 몰려와 교회개혁의 부흥기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적지 않은 대형교회들이 나타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바로 이러한 부흥의 세대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으로 자리를 하게 되었다. 이로써 교회에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이전에 교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류이다. 이전에는 대부분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교회를 찾아오거나 전도되어서 온 사람들이었다. 즉 예수를 믿겠다는 자신의 신앙고백에 의해서 교회로 유입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세대는 자신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고백에 의해서 교회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사람들이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신앙을 몸으로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다. 이들은 결단이 아니라 끝없는 신앙내적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는 세대이다. 바로 이 세대가 이제 한국교회의 교인 절반 이상을 훌쩍 넘었다. 바로 가나안 성도는 이 새로운 세대의 성장에서 나온 또 다른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⁸⁾

이들은 신앙내적 갈등 가운데서 질문을 만들어 냈고, 기존 교회의 구조와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됐으며 주일성수와 같은 교회의 규율 등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이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교회라는 구조에서 자신들을 구하려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즉 이들은 굳이 교회라는 틀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신앙을 만들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 더 지적한다면 이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그러한 신앙의 형태, 또는 기존 교회의 틀에서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종교적 형태에 대해서 묘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서구에서 개인주의화된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던 모습이다. 즉 전통이 아니라 개인주의화된 신앙화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서 엘리트 의식을 갖는 것이다. 이들의 특징은 이전과 같이 교회가 전해주는 전통들, 즉 교리나 생활신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쓰여진 계시로서의 성경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전통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수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바로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구의 교회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면해 왔다. 독일교회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distanzierte Kirchlichkeit(거리를 둔 교회성)’이나 ‘distanzierte Christen(거리를 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신앙은 있으나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왔다.¹⁰⁾ 물론 이들의 형태는 한국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교회에서 성장하고 사회화된 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기관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교회의 이러한 현상을 비교해 볼 때 한국교회에서 가나안 성도의 출현은 한국교회가 서구교회화되어가고 있는 전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로 보인다. 신앙이라는 것이 생활화되어 버리고, 공동체와 전통을 떠나 개인주의화되어가면서 굳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야 될 필요를 안 느끼는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운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며 사고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한국교회가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서구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면 깊은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제 교회에서 성장한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신앙, 교회와 거리를 둔 신앙으로 진화해 간다면 비어버린 교회당을 관광객으로 채우고 있는 서구교회의 뒤를 따라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교회가 이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른 현실에 한국교회는 압축성장 이후 압축쇠퇴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8) 조성돈, 목회사회학. 현대사회 속의 기독교회와 생활신앙 (서울: 토라 2004) 85f.

9) 목회사회학. 83f.

10) Gerald Kretzschmar, Distanzierte Kirchlichkeit. Eine Analyse ihrer Wahrnehmung. (Neukirchener: Neukirchener Verlag 2001)

2. 강요받는 신앙과 변증

이들이 말하는 가장 큰 부담은 신앙에 대한 강요이다. 심지어 폭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신앙에 대한 강요가 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고백이던 감정 표현에 대한 것이든 강요 받는다는 것에 폭력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느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진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쥐 잡듯’ 한 추궁을 들어야했다고 한다. 또 어느 경우는 감정에 의한 것이다. 집회 가운데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신만이 냉정할 때 그 눈물을 강요 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는 경배와 찬양으로 모두가 몰입되어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강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앙이 강요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다. 첫째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특히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인과 고백 부분이고, 둘째는 감정적 동화에 대한 부분이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특히 신앙간증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은 상당한 당혹감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결단이나 회심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고 사회화한 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이해는 하나 고백하기 어려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전에 중고등부 수양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한 여러분들과 후에 회심하여 믿게 된 사람 중에 누가 더 복된가를 물은 적이 있다. 모두가 후에 회심한 사람이 더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자라고 대답을 했다. 이러한 대답으로 이 질문을 한 본인은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보낸 여러분들이 더 복되다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위로’ 해 준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신기한 듯이 듣고 있는 아이들이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해서 놀라웠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장자 콤플렉스’가 있다. 극적인 변화나 극적인 회심이 없이 동행적 신앙을 하며 자라난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질문이 주는 큰 부담이 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서 의문을 갖게 되고 다른 관점을 제기하게 될 때 교회가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모두가 착해야하고, 정답을 이야기해야하는 분위기에서 자신의 신앙적 고민을 이야기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하나의 틀 안에서 형태를 가져야한다는 것은 결국 폭력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고려해 보아야한다. 먼저는 유럽식 변증론의 개발이다. 우리는 그 동안 신존재 증명 등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것을 교회의 형편에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신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이 복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신존재 증명은 중요한 전도의 수단이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이들은 교회로 가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는 문화가 기독교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종교의 문화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우는 어렵다. 그렇기에 이러한 변증론이 한국에서는 자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변화된 종교사회학적인 환경에서 이러한 변증론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이 변증론의 의미는 전통적 변증론의 답습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변증론을 의미하다. 그래서 의문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독교이고, 왜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한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 설득이다. 그것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다.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라는 대답은 이들에게 심히 미흡하기만 하다.

또 하나 우리가 개발하여야할 것은 부딪쳐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신학자나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설교자들이 스스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답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현실에 대한 선포는 일방적이며 동시에 폭력적이다. 특히 이분법적 판단과 선포 형식의 해답들은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좀 더 유연하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한다.

강요받는 신앙의 두 번째는 감정적 동화의 부분이다. 한국교회는 최근 종교성에 있어서 상당히 감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교회에는 통성기도라는 외향적 감성표현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경배와 찬양이 유행하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과 청중석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감성표현은 상당히 극적으로 변해서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바로 이러한 한국교회의 신앙형태 역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요나 강압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현대인들의 종교성을 이야기할 때에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감정적 종교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아직도 집단적 감성을 강요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신앙과 상관없이 부적응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배와 찬양으로 대표되어지는 감성적 종교성에 근거한 화려한 예배의 형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동화하기를 강요하는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나 미국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머징 워십이라든가 영성에 대한 추구는 바로 이러한 현대인들의 종교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본다. 그 방향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예배나 집회의 형태에서 소외되고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3. 신앙의 생활화

이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강조하지만 실제적인 생활을 가까이서 보면 신앙인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특히 꼭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또는 기성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신앙적인 만족이나 필요에 대한 충족을 얻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신학이나 신앙적인 내용의 책을 읽으면서 이들은 이러한 영성적인 부족을 채우고, 또는 다른 종교적 실천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뚜렷한 이유가 없지만 교회를 옮기고 찾는 과정에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이제는 이러한 삶이 거리낌이 없고 부족함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즉 이들에게서 발견되게 되는 것은 신앙의 실천이 아니라 신앙의 보편화이다. 독일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은 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고백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생활화되고 보편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독일의 성도들이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명절에 교회를 가거나, 교회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이나 세례식 등에 교회를 가보는 것과 같은 보편화된, 또는 일반화된 신앙의 양태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명절이 없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적으니 결혼식에서나 교회를 가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이다. 이미 독일교회는 1970년대 이후 10년마다 행해지는 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중 1993년에 이루어진 세 번째 조사에서 교회를 ‘낯설은 고향, 교회(Fremde Heimat Kirche)’¹¹⁾라는 타이틀로 표현한 적이 있다. 혹시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옮겨가는 단계의 한 상징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있다.

4. 자기 식으로 표현되는 신앙

11) EKD, Fremde Heimat Kirche. Die dritte EKD-Erhebung ueber Kirchenmitgliedschaft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haus 1997)

현대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간다. 이것을 두고 독일의 실천신학자인 그랩(W. Grab)은 현대인들의 종교성을 요약하여 패치워크 종교성(Patchwork Religiositaet)이라고 특징지었다.¹²⁾ 즉 조각들을 연결하여서 담요를 만들 듯이 현대인들은 다양한 종교적 상징들을 이어붙여서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상황을 빗대어서 그는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상징을 비대로 하여서 독일의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비슷하게 만나게 된다. 바울의 복음이 있듯이 자신의 복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들의 주기도문을 만들어서 예배 중에 각자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가나안 교회도 있었다. 이들은 교회에서 성장하며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의 가르침과 상징이 익숙하다. 바로 이러한 터전에 기초하여서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생각도 없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배워온 성경의 이야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다양한 서적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신앙의 신조에 대한 강요나 감성적 강요가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은 그러한 강요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신의 종교를 내세우고 있다. 자신들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자신들의 교회를 형성해서 나가겠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아니 그러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복음에, 자신의 설교로 종교적 만족을 얻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종교적 예식이다. 틀에 짜여서 휘몰아치듯이 이어지는 예배의 형식도 아니고 말씀의 강요로 나타나는 설교 중심의 예배도 아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침묵과 묵상이 동반된 예전형식의 예배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이다. 이들은 이 가운데서 스스로 성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하는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톨릭도 결국 이러한 현대인들의 영적 욕구에 응답되어진 것이다.¹³⁾

이러한 종교성에 있어서 가장 큰 거침들은 구태의연한 설교이다. 성도들의 의식은 성장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곳에서 접취되고 있는데 목사들의 설교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긍정적 사고, 축복의 선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강요, 성도들의 삶이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 선포 등으로 대변되어질 수 있는 개신교회의 설교는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성도들에게는 거침들이 될 뿐이다. 더군다나 남북문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부닥쳐서 나오는 설교자들의 강요는 자신들의 의견을 만들어 놓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큰 반발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가나안 교회의 한 곳에서는 자신들을 영적 노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조직화된 교회에 대한 실망이나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성경과 신학에 대한 목마름 등으로 인터넷을 떠돌던 이들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모이게 되었고 이러한 사이버 공동체가 발전하여 실제적인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듣게 되는 설교에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었다. 옳은 말씀을 찾아 떠돌던 영적 노숙자들이 정착하여 만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다. 이들은 예배가 끝나고 이부순서 시간에는 둘러앉아 그날의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일방적 선포나 강요가 아니라 말씀의 뜻을 나누고 자신의 의견도 말하는 형식은 열린 자세이며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가는 이들에게 검증과 나눔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5. 이성적 불신자, 정서적 신앙인

12) Wilherm Graeb, Religion als Deutung des Lebens. Perspektiven einer Praktischen Theologie gelebter Religion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ghaus 2006) 13.

13) 조성돈, 정재영 엮음, 그들은 왜 가톨릭 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 3장 참조.

가나안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이성적 신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이해하면서 믿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오히려 신앙적 우월성마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목회자들의 지적 수준을 논하고, 비합리적인 목회의 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조직에 마음을 상하면서 가지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나안 성도의 다는 아니지만 스스로 신학을 쌓아가다가 불신의 수준까지 이른 사람들도 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 잃었지만 그러다 보니 믿음 자체도 유지 안 되는 것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몇몇은 또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았다. 어쩌면 애써 자신이 무신론자이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에서 떠나고 싶은 것이다. 영적 방황을 하면서, 때로 교회를 떠나 고민 가운데 길을 찾는 과정에서 교회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신앙을 찾아가며 그 틀을 만들어준 하나님을 부인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이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교회라는 것으로 담을 수 없겠구나, 신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나 성서를 넘어선 존재로 있겠지 그 안에 갇히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계속 교회는 마음에 고향 같지만 어떤 면에서 약간의 상처와 분노도 갖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그 일상이 너무나 답답하고 싫었던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예를 들면 교회의 조직된 모습이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그 일상이 저는 너무 견디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해도 정서적으로 신앙을 못 떠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떠났지만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하는 이들이다. 누구에게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애써 얼버무리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직 교회를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물어보면 습관 때문이라고 하지만 자신을 받아줄 하나님을, 그리고 공동체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 힘들면 그 앞에 기도하고 정서적으로 기대는 것이다.

질문: 확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대답: 네, 그렇죠.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조금 덜 힘들 때는, 힘든데 조금 덜 힘든 때는 불교 명상을 해요. 그것도 한 4-5년 정도 배워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더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상징, 익숙한 상징 속을 그냥 가서 막 울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아주 힘들 때는, 일 년에 한두 번.

6. 결어: 포기하지 않는 이들, 포기할 수 없는 이들

이들은 강인하게 자신의 종교를 만들고 그것을 용납해줄 교회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신앙의 정서적 면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을 받아들여 주고 대화해 준다면 참여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라도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라는 이름, 예배의 형식, 기도의 나눔 등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은 분명 영적 방황은 하고 있지만, 아니 어쩌면 영적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들의 순례가 끝나기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순례의 과정을 조금 덜 고통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례의 끝에서 교회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의 지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묻고자 할 때, 또 한 번은 기대어 보고자 할 때 마음을 열고 쉽터를 내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

다. 결국 이들은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한 인터뷰어의 답은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가야 하죠, 찾기는 찾아야죠. 무교회주의자는 아니거든요. 마음에 안 맞는 것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벗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조직이 필요 없다고 하는 무교회는 아니고 찾지 못하는 지금으로 족하다는 정도인 거죠.

'가나안 성도' 와 새로운 신앙의 방향

양 희 송 (청어람아카데미 대표기획자)

1.

'가나안 성도'는 누구인가? '가나안 성도'란 교회에 '안 나가'(거꾸로 읽으면 '가나안')는 그리스도인을 뜻한다. 이 용어는 과거 신학교 등에서 농담처럼 쓰이던 표현인데, 한국 사회 내에 점점 증가하는 하나의 현상을 묘사하는 용어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언급이 늘어나고 있다.¹⁴⁾

이 현상은 '제도권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현상(faith outside institutions)'을 뜻하는데, 다양한 양상을 포함할 수 있다. 단순히 이사 등을 계기로 출석하던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지기도 한다. 혹은 교회 분규 등으로 속한 공동체를 자의에 반해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다른 교회를 찾아 바로 정착하기도 하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부유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익명의 성도들 중 상당수는 정서적으로 '가나안 성도'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본격적인 경우는, 아예 교회 출석을 하지 않거나, 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교회를 순례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대체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신앙을 떠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가나안 성도' 사례를 접하면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단지 제도권 교회를 떠났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자의식을 갖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서구 교회는 비교적 일찍부터 '제도권 교회/조직'에 대한 반발을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신앙생활의 양상이 존재해왔으며, "believing without belonging", "unchurched Christian" 등의 표현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 받아온 미국의 '이머징 교회(emerging churches)'라든지, 9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어 온 영국의 '포스트-에반젤리칼 운동(post-evangelical movement)' 등은 그 지향이 전형적인 제도권 교회의 강화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 신앙적 각성과 새로운 신앙 유형을 형성해 왔다. 이런 흐름은 자신들이 기원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포함하고 있으나, 서구에서는 이를 기독교 출판계나 신학자, 제도권 교회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서 교훈을 얻는 기회로 삼았다.

2.

외국의 사례들에 유의해서 한국의 '가나안 성도'를 관찰할 때, 겹치는 부분과 차별성이 있는 지점이 나타난 터인데, 미국의 '이머징 교회' 논의를 살펴보면 대략 3가지 흐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첫째는 이런 현상을 주로 '청(소)년 문화'에 대한 접근이란 차원에서 하나의 하위문화

14) 대표적으로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복있는사람, 2012), 125-26의 내용과 각주 24를 참조하라.

15) Eddie Gibbs & Ryan Bolger, *Emerging Churche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5)는 부록으로 많은 사례를 인터뷰 해놓았는데, 한글번역판 [이머징 교회](쿵란출판사, 2008)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이머징 교회 흐름의 철학, 신학, 예배, 성경과 교리 등을 내부자들의 시선으로 검토한 Scot McKnight, Peter Rollins, Kevin Corcoran, Jason Clark (eds), *Church in the Present Tense: A Candid Look at What's Emerging* (Grand Rapids: Brazos Press, 2011)이 도움이 된다.

(sub-culture)로 여기는 흐름이다. 이머징 교회 초창기에 이를 교회 내의 청소년이나 청년 그룹을 위한 ‘사역 전략’ 혹은 ‘문화적 접근’으로 여기고 이를 받아들인 경우들이다. 이들은 크게 보아 ‘교회성장 이론’이나 ‘교회 개혁’을 위한 도구로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의 교회는 이들을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적 취향을 갖고 있는 세대로 인식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¹⁶⁾

둘째는 기성교회에 대한 신학적, 문화적 대항운동(counter-movement)으로 이해하는 흐름이다. 이 경우는 대체로 제도권 교회의 주요한 특징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s)로, 혹은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로 자신을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교회성장, 사회윤리, 성경관, 교리 등의 문제가 이들에게는 전면적으로 문제시되고, 이에 대해 답을 주는 많은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다루어진다. 교회와 관련해서는 해체적 전략(deconstructive strategy)이 주로 논의된다.¹⁷⁾

셋째는 포스트모던적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앙적 표현(new way of expression)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교회 바깥의 신앙을 스스로 재정의할 수 있으려면 신학적 자원이 필요하다. 이 흐름은 신학적으로나 교회론적으로 좀더 구성적 전략(constructive strategy)을 구사하는 듯하다. 새로운 교회, 혹은 기독교의 양상을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¹⁸⁾

3.

‘가나안 성도’에게서 물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들은 무엇에 저항하는가? 그리고, 왜 저항하는가? 이들은 제도 종교(institutionalized religion)에 대한 반발 혹은 더 나아가 환멸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는 무의미한 예배(종교의식), 권위적이지만 할 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위계질서(성직주의), 위선적이거나 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성도들의 영성과 윤리),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질문에 대한 무능력한 대답/대응 등이 쉽게 꼽힐 수 있다. 각각의 질문은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한국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질문들이라면, 설교의 실패(설교문 표절, 성경 해석의 피상성, 적용의 부적절성 등), 교회 갈등의 격화(세습, 재정, 섹스 스캔들 등) 등을 비롯하여, ‘성직주의’, ‘성장주의’, ‘승리주의’에 대한 반대를 포함할 것이다.¹⁹⁾ 가나안 성도 현상은 현재의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의 대표적 증상의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질병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해나가는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이 동시에 고찰되지 않고, 손쉽게 폄하해 버리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가나안 성도’는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제도적 종교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개인의 영성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순히 공동체

16) Dan Kimball, *Emerging Worship: Creating Worship Gatherings for New Generations* (Grand Rapids: Zondervan, 2004)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17) 토니 존스(Tony Jones)는 10여권의 저서와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자이지만, 그가 한때 대표(2005-2008)로 이끌었던 The Emergent Village를 비롯, www.patheos.com에 있는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이머징 교회 운동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18) 이머징 교회 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꼽힐 브라이언 맥클라렌(Brian McLaren)이 지향하는 방향은 그의 책 제목인 *A Generous Orthodoxy: Why I Am a Missional, Evangelical, Post/Protestant, Liberal/Conservative, Mystical/Poetic, Biblical, Charismatic/Contemplative, Fundamentalist/Calvinist, Anabaptist/Anglican, Methodist, Catholic, Green, Incarnational, Depressed-yet-Hopeful, Emergent, Unfinished CHRISTIAN* (Zondervan, 2004)가 잘 보여준다. 국내에는 [기독교를 생각한다](청림출판, 2011)로 번역되어 있다.

19)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희승 [다시 프로테스탄트](복있는사람, 2012) 제 2부를 참조하라.

의식의 결핍이라고 비판하거나, 종교적 쇼핑을 한다고 비판하기 전에 이런 방식의 신앙양식을 좀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대체로 기독교 신앙 바깥으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의 차원에서 이것이 가능해지면 상당히 새로운 양상이 펼쳐질 수가 있다. 교회 바깥에 신앙을 유지 발전 시켜줄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적절히 재구성해서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워갈 수 있다.

나는 이 지점이 ‘가나안 성도’ 현상이 현재의 한국 개신교에 던져줄 수 있는 긍정적 기여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공동체’를 말하면서, 사실상은 ‘집단주의’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공동체는 ‘집단 의존적 개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자립적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상호의존을 경험할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공해주는 것이 그의 신앙적 자원의 전부일 수가 없다. 한국의 개신교 사회 전반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 자원들을 끌어 쓸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작업은 격려받아야 하며, 이런 구조에 기여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증가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개신교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져본다. ‘가나안 성도’ 현상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를 되묻고, 다시 캐물어 보는 작업이 한국 개신교 전체의 갱신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가나안 성도, 그들은 누구인가?²⁰⁾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목회사회학연구소 부소장)

1. 들어가는 말

한국 교계에서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어떤 이는 십 수년 전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이십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찾아 다녔듯이 ‘새로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인 것과 같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또는 의도적으로 ‘기성’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들 중 일부는 교계에서 집계한 1,190만명이라는 개신교인의 숫자와 통계청에서 집계한 860만이라는 수치상의 불일치로부터 잃어버린 혹은 소실된 300여만 명의 개신교인(본인들을 포함)을 지칭하는 말로 ‘가나안 성도’ 혹은 ‘300만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주택 총조사는 자기 확인 방법으로 조사되므로 현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지 또는 출석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모두 포함해서 집계한 수가 860만 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860만 명 외에 추가로 300여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주위에서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2004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로 추정해 본다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가 무려 758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198만 명을 제외한 560만 명이 개신교를 믿다가 무종교인이 된 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나안 성도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²¹⁾

사회가 보다 다양하게 분화하고 다원화되는 경향으로 이러한 가나안 성도는 점차 증가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교와 관련하여 중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구에서는 이미 ‘소속되지 않은 신앙’(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²²⁾ 이것은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서 제도화된 종교 형태를 벗어나 자신들의 신앙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신앙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나안 성도가 이러한 종교 세속화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²³⁾

우리 사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기초 조사의 성격으로 심층 면접 방법을 통해 교회에 출석하던 이들이 어떤 이유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나안 성도가 되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가나안 성도들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조사 연구는

20) 이 글은 2010년 바른교회아카데미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이다.

21)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서울: kmc, 2010), 135쪽.

22) 이에 대하여는 Grace Davie, *Religion in Britain since 1945: Believing without belonging*(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를 볼 것.

23) 종교사회학에서 말하는 ‘종교의 세속화’는 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이나 의미가 약화되는 과정을 말하며, 한 측면으로서 종교의 쇠퇴를 의미하기도 한다.

<바른교회아카데미>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두 명의 연구자가 2010년 6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5개월간 18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는 이른바 ‘가나안 교회’ 세 곳을 탐방하여 이들의 모임을 참여 관찰하였고, 집담회를 통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연구조사는 가나안 성도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험적인 조사이지만, 이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가나안 성도들의 특징

(1) 강요받는 신앙에 대한 부담감

교회를 잘 다니던 이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것일까? 첫째로 주목되는 요인은 ‘강요받는 신앙’에 대한 부담이다. 신앙은 개인의 믿음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신앙에도 집단주의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든지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친숙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면접자 18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모태신앙이었음에도 신앙을 강요받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모태신앙인 한 20대 여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가정의 신앙교육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그 이유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는 어머니가 대학에 붙으면 외국으로 단기선교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약정 기도를 했다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단기선교까지 다녀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강요받는 데 대해서 매우 큰 부담감을 느꼈고, 심지어는 ‘폭력적’이라고 느끼기까지 하였다. 역시 모태신앙이며 유명 대기업에 다니는 한 40대 남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를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강요를 받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그것이 누가 자꾸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 있어요.”라고 말한 만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기계도 아니고, 뭐 데이터를 때려 넣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필드에 이름을 딱 찍어 놓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자꾸 누가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하고 물으면, 지하철에서 “도를 아십니까?”와 똑같은 느낌이에요.

또 다른 모태신앙자이자인 30대 남성 사업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도리어 “기독교가 최고의 진리라는 것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명하실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독교가 최고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데도 이것이 하나의 폭력화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아니면 다 사탄인 것, 부처도 사탄이고, 이슬람도 사탄이고, 모든 것이 다 사탄이잖아요? 모든 것이 사탄의 계교잖아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절대적 배타성이고,……도가도 과연 그 언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한 생각이 없고 조금이라도 이론(異論)을 내밀게 되면 사상적으로 난도질하는, 저는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 생각해보게 돼요.

이 남성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서 가슴에 눈물이 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도 교회들이 그것을 강요하게 되니까 더 이상 다른 교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힘이 들어서 이제는 예배 시간에 말이 없는 웨이커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한다.

(2) 소통 단절의 문제

이러한 신앙의 강요는 신앙 공동체에서조차 소통을 가로막는다. 신앙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공동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것이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교단과 교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네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차이는 차별을 낳고,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는 신앙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다. 목회자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거기에 질문할 수 없으며, 교인들 사이에서도 신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낀다는 한 30대 남성은 교회 안에서 소통의 부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의 문제인데 교회 내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원칙들이 너무 무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대해서든 밖에 대해서든 결국 치열한 고민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뼈를 깎아내는, 자기 뼈를 깎아내는 기분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청을 하고 대화가 이뤄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는 더 조심스럽게 하고, 더 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덕이 안 되다 라든지.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주의 종이 라든지 그런 표현, 그런 어떤 목회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몇 몇 목회자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제가 생각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런 이미지를 가장 심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사실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고 빼고 하다보니까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자체가 둔감해져 버린 것이 가장 싫더라고요.

그는 부흥회와 통성기도를 할 때도 소통의 부재를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저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부흥회 분위기, 그 자체가 불편해요. 너무 분위기를 띄워서 가려고 한다든지, 설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부흥회 설교가 개인의 희생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어떤 소위 말하는 영적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자꾸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흥회의 설교도 불편했고, 그리고 통성기도라는 형태도 저는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들으면서 하는 기도를 즐겨서 했거든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그런 분위기를 편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통성기도를 하면] 점점 그게 별의미가 없이 힘만 들고 뭔가 좀 내가 하려던 이야기들은 자꾸 까먹게 되는 그런 희한한 기도, 그런 식으로 느낌이 굳어져 가는 거거든요.

유명 기독교 대학교 출신인 한 30대 남성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주입하려고 하는 분위기에 기독교인들조차 거부감을 느끼고 비기독교인들 중에는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자신은 기독교 안에는 매우 풍성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해 버리고 기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뿐인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견디기 힘들어 결국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것이 실제 기독교의 핵심 문제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될 때는 그 억압적인 분위기가 보다 강해지게 된다. 한 30대 남성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자신의 멘토들에게 얘기했다가 겪은 황망한 경험담을 전해 준다.

군대 가기 전에 제 멘토 선생님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기독교가 최고 진리임을 저에게 어떻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까? 세분이 앉아 계시다가, 다 보수적이신데 앉아서 저를 쥐 잡듯이 잡았죠. ‘너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너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 갔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하는 질문은

그 질문이 더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기독교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한 30대 남성은, 교회는 공동체로서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목사님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져서 아직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3) 신앙과 삶의 불일치

이러한 소통의 부재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님에도 기존 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들의 주류에 속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가나안 성도들이 다른 교인들 속에 섞이기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인들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식의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모태신앙자인 한 30대 남성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세상과 자신을 구별 지은 용어들을 사용하고, 자기들끼리는 알아듣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 속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30대 남성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구원이라는 것이 한 순간을 포장을 해서 언제라고 말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과정의 거의 예외 없이 정신적인 것이고, 어떤 사람의 인격을 놓고 얘기했을 때 전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점 하나, 하나 찍혀서 전체가 습관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과정 자체도 다 필요 없다,……‘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든지,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세상의 윤리라는 것도 거부하는 듯한, 사실 저는 대학 가서 공부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이 그 쪽이었어요. 기독교인이 영적인 구원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부딪힌 사람들은 그것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원론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을 하다보니 교회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이 맞다 하더라도 그 시각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른바 ‘값싼 은총’의 문제이다. 신학자인 본회퍼가 말한 데서 유래하는 ‘값싼 은총’은,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름과 복종’이 없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자판기의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믿음만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한 책임 있는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실천 없는 신앙’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모태신앙으로 기독교학과 출신인 40대 남성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고 체화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면서 한국 교회의 편협한 구원관 때문에 신학을 그만 두고 목회자 되기를 포기했다고 말한다. 또 한 30대 남성은 기독교 자체는 더 많은 가치를 품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마치 예수 믿는 것을 특권화 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갈 것이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유아적 수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얘기도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도 풀릴 리히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통합된 신학 이론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묻고 “네”라고

얘기하고 딴 짓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정말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간디가 제일 좋아했던 것도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힌두교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만 자기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했죠.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죠. 그 밑에 간디를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셨대요. 그냥 간디를 조용히 계속 도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이 목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도 한 번도 우리에게 예수의 도를 전하지 않았지만 당신 삶속에서, 당신의 손짓과 몸짓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본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답지 않은가 생각해요.

또한 모태신앙으로 신경외과 의사인 한 30대 여성은 목회자와 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동료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전혀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 단적으로 우리 전공의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술도 안 먹고 기독교적으로 산다고 표방을 해요. 표방은 하는데 그 친구가 환자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자행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옆에서 누누이 얘기를 해도 뭐 그때 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교회를 갈 것인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안 보이게 저는 살고 싶은 것이고,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것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사람이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만났던 한 40대 여성은 자기 주변의 기독교인들에 대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낼지 모르지만 회사에서는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저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일차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일상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원론적 사고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생활에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독교인들을 분리주의자 또는 배타주의자로 만들어 버릴 위험성이 있음에도 대부분 보수 교회에 속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이원론 속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자기식으로 표현되는 신앙

지식정보화 사회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도 종교의 의례, 가르침, 계율은 따르지 않으면서 개인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취미 생활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으며,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다면, 하나의 장신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종교 사회학자인 로버트 우스노우(Robert Wuthnow)는 이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를 D.I.Y. 종교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취사선택을 하여 자기자신의 종교를 만든다는 것이다.

가나안 성도들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이 포착된다. 스스로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관념이 기존 권위와 충돌할 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의 기독교를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보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덜하고 교회를 쉽게 옮기는 경향이 있어, 기성 교회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자신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되기도 한다.

보수 신학교 출신이고 현재 사회과학 분야의 박사과정생인 한 30대 남성은 신앙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신에 대해서 질문을 끝까지 던져보고 그런 견지에서 신은 특정 교리나, 심지어는 기독교라는 틀 안에조차도 가두어

지지 않는 존재이므로 끝까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그의 이야기다.

과거의 계몽주의자들은 자기의 근본을 버리잖아요. 근본을 버리는 것이 계몽인 것이고, 버리는 것이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전통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어진 것을 선용을 하는 거죠. 그것의 기본 뿌리 자체를 내가 뭐 버릴 필요는 없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재전유 하는가.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다른 식으로 만들어가듯이 저도 이제 뭐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바꾸어가는 거겠죠,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다른 의미의 기독교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나한테 일차적으로 유의미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의미하면 좋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나쁘다고 기독교를 다 버리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개혁이라고 할까? 교회는 버렸지만 기독교는 버리지 않은 거죠.

모태신앙자이고 보수 신학교 출신이면서 현재는 다른 신학교에서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한 30대 남성은 교회에 출석하느냐는 물음에 “주일은 쉽니다.”라고 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었다.

불교의 영성 수행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교회라는 것으로 담을 수 없겠구나, 신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나 성서를 넘어선 존재로 있겠지 그 안에 갇히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주중에는 기독교 기관에 있으니까 주일 하루쯤은 쉬어야지 하는 생각에 계속 교회는 마음의 고향 같지만 어떤 면에서 약간의 상처와 분노도 갖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비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그 일상이 너무나 답답하고 싫었던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서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 예를 들면 교회의 조직된 모습이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그 일상이 저는 너무 견디기가 싫었던 거예요. [허용된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서로 다들 나약해져버리고, 서로 상처받지 않을까 배려하는 사이에 정작 어떤 그 강한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못 견디었던 것이지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다 건강한 교회였거든요. 재정적으로도 건강하고 교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편이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급진적인 어떤 것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학교가 싫어서 학교를 뛰쳐나갔듯이 그때는 교회가 너무 지켜줘서 나오게 돼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한 40대 남성은 정규 신학교에 다니지 않았지만, 독학으로 많은 신학 서적을 섭렵하고 여러 권의 주석 책을 독파한 후에 자기자신의 ‘복음’이 생겼다고 말한다.²⁴⁾

그게 제가 삶에 날이 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무뎠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 잘난 맛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가 내가 바라본 아까 말했듯이 너무 날이 선 상태로 내가 봐라봐서, 일단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도 자기 복음이라고 했고, 마태도 마태복음이고, 누가도 자기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복음이 있었듯이 나도 자신에 대한 복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교회들과 잘 안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계를 좀 해요.

이 남성은 제도권 교회와 비제도권 교회까지 몇 군데 나가봤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생각에 정착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는 과거와 같이 특정인이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변하였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신학 서적을 접할 수 있고,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이 가나안 성도들이 자기들끼리의 교회로 모이도록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찾아간 가나안 교회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하겠다.

24) 이와 비슷한 발견이 미국 종교에 대한 로버트 벨라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가 인터뷰한 한 기독교인은 쉘라 라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종교를 “셸라교”(Sheilatism)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하여는 로버트 벨라 외, 「미국인의 사고와 관습: 개인주의와 책임감」(김명숙 외 옮김)(서울: 나남, 2001), 373쪽을 볼 것.

3. 가나안 교회의 특징²⁵⁾

우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나안 성도들이 모여 있는 '가나안 교회' 세 곳을 방문하여 참여 관찰하고 가나안 교회 참여자들과 집담회 형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세 곳 모두 참여자는 20명 이내의 적은 인원들이 모이고 있었고, 모두 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한 곳은 다양한 연령대에 속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안수 받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다른 두 곳은 10~15명 정도로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설교는 신학 교육을 받은 전도사와 함께 일반 평신도도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고 있었다.

한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은 이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을 "신앙이 강요되지 않는 점,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교회에는 복음주의자부터 무신론자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무신론자라도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고 말한다. 이들의 예배에서는 주기도문도 각자의 버전으로 고쳐서 자기의 신앙고백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을 중요시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신앙고백에 따라 예수적인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 다른 교회는 특정 목회자의 설교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운 경우이다. 기존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성경에 대한 자세한 강해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합리적인 설교가 아닌 성경 본문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현금을 강요하거나 목회자의 권위를 강조하는 설교에 지친 나머지 성경에 입각한 설교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목회자를 초청하여 교회로 모이고 있었다. 스스로를 '영적 노숙자'라고 표현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영적 노숙자들의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회는 초기에 유명 대형교회 출신자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다. 유명 대형교회에서 문화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회의를 느껴 교회를 나와서 자신들 나름의 문화 사역을 수행하다가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문화 사역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이 교회의 장점으로 수평적 리더십을 꼽았다. 이 교회는 특정 권위자가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효율성을 명분으로 핵심 구성원 주도로 의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모두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만장일치제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결정은 다소 느리더라도 참여자들이 다 함께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서로 다른 점을 조정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 수가 20명이 넘으면 분리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세 교회에 공통점이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는, 적은 수가 모여서 공동체적인 환경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리더십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적은 수가 모이기 때문에 친밀한 대면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예전 예배를 드리는 한 교회 외에 두 곳은 예배도 들러 앉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드린다. 그리고 제도화된 기성 교회와 달리 이들은 특정한 리더십이나 권위를 독점하지 않고 구성원들 모두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도 참여한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들의 예배는 주일 오후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이고 주일 이외에는 다른 모임이 없다는 것이다. 여느 교회들처럼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모이는 것은 주일 아침에 번잡하게 준비하여 교회에 가지 않고 한가로운 오후 시간에 여유롭고 편하게 모이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오전에 기성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오후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5)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교회'는 교회 이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글에서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이 시간에 삶을 나누고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평일에 성경공부 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 일종의 '홀어지는 교회'를 표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이나 활동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통점이자 특징은 이 교회들은 예배 후에 그 날의 설교를 나눈다는 것이다. 이 세 교회 모두 설교 후에는 매일 설교에 대해 받은 감동을 나누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며 자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설교에 대한 비평을 하기도 한다.²⁶⁾ 기성 교회에서 설교 후에 설교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고 설교자에게 설교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그것은 교회 전통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자로서의 목회자가 선포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것은 상당 부분 일방성을 떨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가나안 교회에서 설교에 대해 토론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교회 전통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관과 교회관을 표출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가나안 성도들은 신앙은 고착화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에 의해 정답이 제시되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질문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수용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자칫 기성 교회와의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앞으로의 사회가 더욱 다원화될 것임을 감안할 때 교계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²⁷⁾ 이러한 가나안 교회를 선불리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한다면 자칫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들이 기성 교회를 떠난 이유가 바로 그러한 강압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기성 교회가 제도화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보다 수용성 있는 공동체적인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이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보다 근본으로부터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⁸⁾

4. 나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마치 소통 불능의 공간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사회 안에 존재하면서도 바깥세상과는 담을 쌓은 채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로 자기들끼리의 논리로 자기들끼리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특히 모태신앙자들에게조차도 교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에 매우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 없이 서로 다른 부류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2005년에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에서 천주교 인구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반면에 개신교 인구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천주교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개신교 인구는 같은 곳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흔히 도시의 합리적인 지성인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종교로 여겨

26) 가나안 교회는 아니지만, 최근에 등장한 여러 형태의 대안적 교회들 중에는 예배 처소를 주일에만 빌리거나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면서 예배 후에는 설교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이미 신학계에서는 전통적인 설교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방향의 선포가 아닌 소통으로서의 설교를 강조하는 보기로, 루시 앳킨슨 로즈, 「하나님 말씀과 대화 설교: 변혁적 설교로서의 대화 설교」(이승진 옮김)(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을 볼 것.

28) 제도화의 딜레마란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교회 역시 제도화될 필요가 있지만, 제도화가 될수록 비인격적인 관계나 관료주의화와 같은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저 온 개신교가 최근에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보다는 비합리적이고 덮어놓고 믿는 식의 감정적인 종교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지성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바람직하게 여겨질 수 없을 것이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는 그들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기성 교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기성 교회에 대해 뚜렷한 불만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고 그들 중에 일부는 기성 교회와 차별성을 갖는 대안적인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중세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권화 됨에 따라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교권이 미치지 않는 사막으로 나갔던 사막 교부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른바 교회 제도화에 대한 반작용 운동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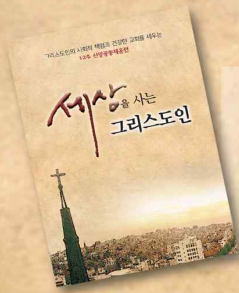
현재 우리 사회의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회도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제도화되는 데 대한 반작용이자 비제도권의 교회 갱신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선불리 교화하려고 하거나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을 기성 교회에서 수용함으로써 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임을 표방하지만 그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다. 영성과 사회성의 균형을 이루며 바람직한 공동체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야기되는 세이비아 교회의 고든 코스비 목사가 “참된 교회와 공동체에는 극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던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교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며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교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12주 신앙공동체훈련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제1부 하나님 나라와 교회

- 1. 한국 사회 속의 교회 2. 시민 사회 속의 교회 3.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4. 하나님 나라와 교회

제2부 하나님 나라의 삶

- 5. 정의와 사랑-다문화 6. 공동선과 참여-정치 7. 포용과 기회-경제 8. 창조와 질서-생태

제3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 9. 공동체의 삶-시민정치 10. 생명과 위로-자살 11. 소명과 책임-직업 12. 새 하늘과 새 땅-가치있는 삶



» **김동호 목사** | 높은뜻연합선교회대표, 열매나눔재단대표이사
기독교인으로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고 이야
기할 수 있는 신앙공동체훈련교재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 교재를 통해서
진지한 고민과 회복이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정성진 목사** | 거룩한빛광성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하지만 또한 세상에 속해서 삽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만 그들의 삶
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특
히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래도 설교 중에 가르치지만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도록 하는 데는 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교재가 나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상과 사회를 바르게 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
으로 사는 법을 우리 교인들이 배웠으면 합니다.



» **한기양 목사** | GMN회장, 울산새생명교회
이번 교재출간을 위해 목회사회학연구소와 집필진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
을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균형잡힌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삶과 신앙의 균형이 이
루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조성천 목사** | 이리중앙교회
목회자로서 가지는 고민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어떻
게 살아야 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교인들과 함께 말씀과 세상과의 소통과 실천을 배우게 될
것에 기대와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한국교회에 작은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며
추천합니다.



» **김용성 목사** | 수표교회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나라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교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교회론을 중
심으로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통찰력과 새로운 결
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출판사/ 일상과 초월

가격/ 7,000원

구입안내/ cafe.naver.com/sesangsa01(네이버카페)

문의/ 02 · 2632 · 2004

발행일 2013년 4월 25일

편 집 목회사회학연구소

본 발제문의 저작권은 저자와 주최 단체에 있으므로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